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필요성 및 추진방향 연구

A Study on the Need for a National Training Center in Jeonbuk
and its Construction and Operational Plans

정은천 최윤규 최지훈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필요성 및 추진방향 연구

A Study on the Need for a National Training Center in Jeonbuk
and its Construction and Operational Plans

정은천 최윤규 최지훈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책임	정은천	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 2장, 3장 3절, 5장
공동연구	최윤규	연구위원	제4장
	최지훈	전문연구원	제3장 1절, 2절

자문위원	김상훈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산업연구실장
	이경숙	한국체육대학교	경기지도학과 교수
	최덕환	우석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윤현수	원광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교수

연구관리 코드 : 22JU26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연구 목적 및 방법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의 건립 필요성 및 당위성 제시와 기존 국가대표선수촌과 차별화된 추진방향 제안에 그 목적 있음
-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첫째,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종목 현황과 중앙정부의 스포츠 정책을 분석하여 건립 필요성을 제시하고, 둘째, 전북과 남원의 일반환경 및 스포츠환경 분석을 통해 경쟁우위를 도출하여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의 건립 당위성을 제시하며, 셋째, 유소년선수 육성시스템, 국가대표선수촌 시설 및 운영, 스포츠산업 지원 현황 등을 분석하여 기존 국가대표선수촌과 차별화된 단계적 건립 추진방향 제시임

■ 연구방법

- 건립 필요성에서는 유소년선수 육성시스템 체계화, 유소년선수를 위한 종합훈련시설 설치, 스포츠 시설의 다변화를 통한 지역거점 국가대표선수촌 및 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 필요성 검토를 위해 문헌조사와 전문가 자문 실시
- 사업 여건 분석을 통한 건립 당위성 검토에서는 사업 예정지인 전북과 남원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스포츠환경 분야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관련 경쟁우위 도출 및 여건을 분석하고, 스포츠산업 환경분석을 위해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현황분석에서는 유소년선수 육성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외 국가대표선수촌의 시설과 운영 현황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하며,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신설 종목의 수용 가능성 검토를 위해 문헌조사와 전문가 자문 실시

2. 결론 및 정책제언

■ 연구결과

- 전북은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및 전남과 인접해 있는 중부권 이남의 중심지이고, 남원은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시설이 확보되어 있어 지역거점 종합훈련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적 조건을 보유함
- 전북은 전국 네 번째로 많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고, 남원은 다수의 국제대회와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대회 인프라 구축과 시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라는 경쟁우위를 가지며, 높은 스포츠산업 성장잠재력과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음
- 현황분석 결과, 유소년선수를 위한 새로운 육성시스템과 기존 국가대표선수촌의 훈련시설 부재 종목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고, 스포츠 서비스업에 집중된 지역 차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포츠제품 중심의 스포츠산업 육성이 절실히 필요함

■ 정책제언

- 조성 대상 후보지인 덕산지구, 용산지구, 신생마을 중 접근성, 훈련시설 활용성, 생활편의성 등에서 상대적 입지 우위를 가지는 신생마을을 우선 고려할 것을 제안함
- 한정된 공공재원의 확보 가능성을 고려하고 일시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인 사업 추진을 제안하는바, 1단계는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으로써 기존 국가대표선수촌이 수용하지 못하는 종목과 전북과 남원이 경쟁우위를 가지는 종목을 중심으로 훈련시설을 설치하고 부대 지원시설로 학습지원센터, 인권보호센터, 스포츠 헬스케어 센터 설치를 제안함
- 2단계는 지역거점 국가대표선수촌 기능 강화로써 종목을 확충하고 부대시설로 스포츠 잡센터, 오픈 플레이센터 설치와 3단계에서는 스포츠기업 R&D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선수와 민간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스포츠 관련 기관과 민간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함

차 례

CONTENTS

요약	i
----------	---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가. 연구의 필요성	3
나. 연구목적	5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6
가. 연구 범위	6
나. 주요 연구내용	6
다. 연구 방법	7

제2장 건립 필요성

1. 유소년선수 육성을 위한 종합훈련시설 설치 필요성	11
가. 유소년선수 육성시스템 구축 및 체계화	11
나. 유소년선수 종합훈련시설 설치	12
2. 스포츠시설의 다변화 필요성	13
가. 신설종목 수용 통한 국가대표선수촌의 지역 거점화	13
나. 스포츠용품 테스트배드 활용 통한 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	14

제3장 사업 여건 분석

1. 일반환경 분석	17
가. 자연환경	17
나. 인문환경	20
2. 스포츠 및 스포츠산업 환경분석	30
가. 스포츠 환경분석	30
나. 스포츠산업 환경분석	41
3. 시사점	47

제4장 차별화 방안 모색을 위한 현황분석

1. 유소년선수 육성 현황	51
가. 유소년체육 육성 현황	51
나. 유소년선수 경기력 제고	52
2. 국가대표선수촌 시설 및 운영 현황	54
가. 국가대표선수촌 현황	54
나. 수용 종목	60
다. 해외 국가대표선수촌 운영 현황	63
3. 스포츠산업 지원 현황	65
4. 시사점	67

차 례

CONTENTS

제5장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추진방향

1. 건립 방향	71
가. 사업 추진전략	71
나. 사업 대상 후보지 검토	73
2. 종목선정 및 단계별 건립 규모	79
가. 종목선정	79
나. 단계별 건립 규모	80
3. 운영방안	86
가. 이용 수요 추정	86
나. 경제적 타당성 분석	90

참고문헌	98
------------	----

영문요약 (Summary)	100
----------------------	-----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3-1] 전북 및 남원의 기후 평년값(1991~2020년)	19
[표 3-2] 전라북도 시·군별 인구 현황	20
[표 3-3] 전라북도 도로보급률	22
[표 3-4] 전라북도 철도 현황	22
[표 3-5] 전라북도 철도이용객 현황(2014~2018)	23
[표 3-6] 전라북도 철도 여건 변화와 전망	23
[표 3-7] 전북 및 남원 실질 지역내총생산 추이	25
[표 3-8] 전라북도 공공체육시설 설치 현황	30
[표 3-9] 전라북도 시·군별 공공체육시설 설치 현황	32
[표 3-10] 2022년 남원시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 현황	35
[표 3-11] 대한체육회 시도별 선수등록 현황	36
[표 3-12] 연도별 스포츠산업 전체 요약	41
[표 3-13] 사업종류별 스포츠산업 사업체 수	43
[표 3-14] 사업종류별 스포츠산업 매출액	44
[표 4-1] 수호랑·반다비 캠프 프로그램	53
[표 4-2] 선수촌 현황	54
[표 4-3] 진천선수촌 내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종목 훈련시설	61
[표 4-4] 주요 국가의 국가대표선수촌 운영 현황	64
[표 5-1] 조성 대상 후보지 입지평가 종합	78
[표 5-2] 1단계 건립 규모 및 시설	81
[표 5-3] 2-1단계 건립 규모 및 시설	82
[표 5-4] 2-2단계 건립 규모 및 시설	83

표 차 례

LIST OF TABLES

[표 5-5] 3단계 건립 규모 및 시설	84
[표 5-6] 단계별 건립 규모 및 시설 종합	85
[표 5-7] 1단계 이용 수요 추정	86
[표 5-8] 2-1단계 이용 수요 추정	87
[표 5-9] 2-2단계 이용 수요 추정	88
[표 5-10] 3단계 이용 수요 추정	89
[표 5-11] 연도별 사업비	91
[표 5-12] 인건비	92
[표 5-13] 시설운영비	92
[표 5-14] 소비자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	93
[표 5-15] 대한체육회 우수선수 합숙훈련 지원단가	93
[표 5-16] 합숙훈련 유치 수입	94
[표 5-17] 대관수입	95
[표 5-18] 임대수입	95
[표 5-19] 경제적 타당성 분석 종합	96
[표 5-20] 경제적 타당성 분석표	97

그림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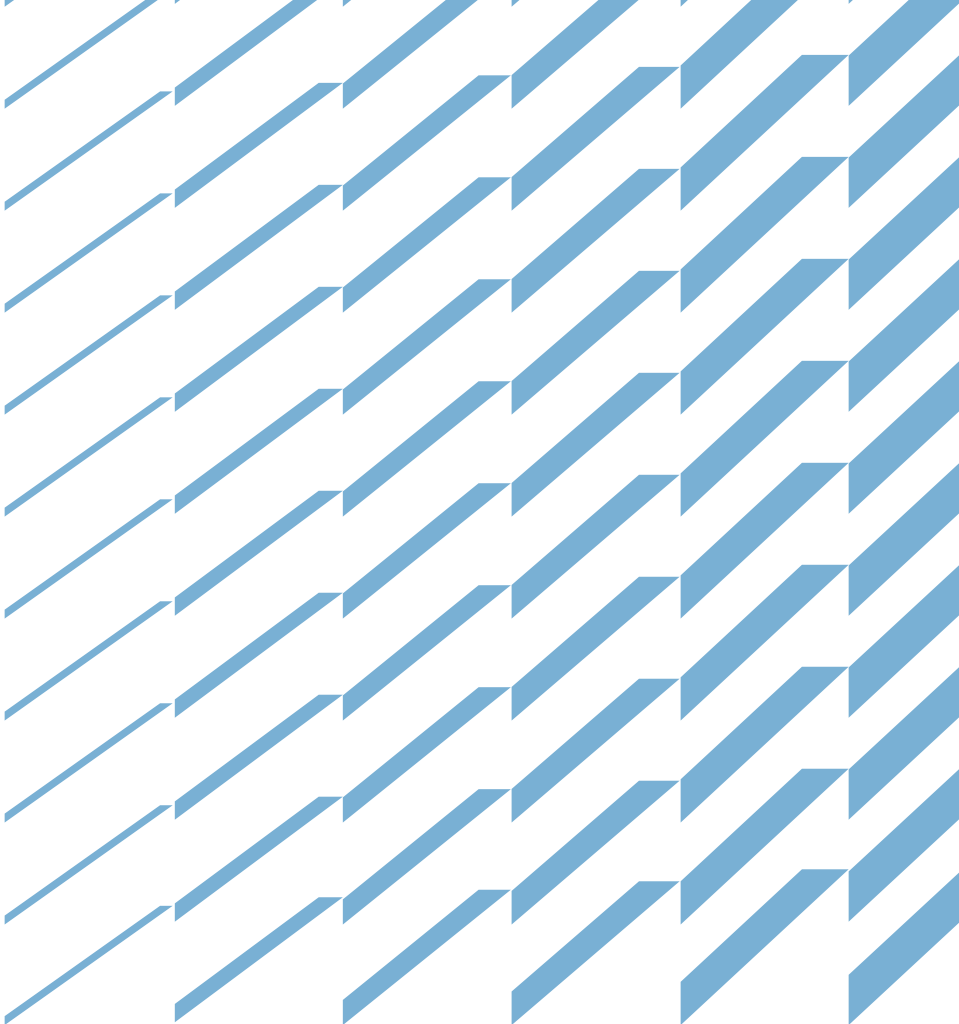
LIST OF FIGURES

[그림 3-1] 전라북도 및 남원시 행정구역	18
[그림 3-2] 인구변화 추이	21
[그림 3-3] 남원시의 지리적 접근성	24
[그림 3-4] 전국 시도별 1인당 GRDP(2020년)	26
[그림 3-5] 전라북도 시군별 1인당 GRDP(2020년)	26
[그림 3-6] 전라북도 시군 재정자주도	27
[그림 3-7] 전라북도 시군별 문화재 보유 현황(2019년)	28
[그림 3-8] 전라북도 시군별 문화기반시설 현황(2019년)	29
[그림 3-9] 연도별 전라북도 공공체육시설 설치 추이	31
[그림 3-10] 시도별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2020년)	31
[그림 3-11] 남원시 주요 체육시설	33
[그림 3-12] 전국 및 전라북도 연도별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37
[그림 3-13] 전국 및 전라북도 전문체육 선수 및 생활체육 동호인	38
[그림 3-14] 2022년도 주요 종목 전라북도 등록선수 현황	40
[그림 3-15] 전국 및 전라북도 사업종류별 사업체 수	45
[그림 3-16] 전국 및 전라북도 사업종류별 매출액	46
[그림 4-1]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조감도	56
[그림 4-2] 태릉선수촌 조감도	58
[그림 4-3] 태백선수촌 조감도	59
[그림 5-1] 덕산지구 부지 현황도	74
[그림 5-2] 용산지구 부지 현황도	75
[그림 5-3] 신생마을(용정동) 부지 현황도	76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5-4] 출라비스타 올림픽 트레이닝 센터 BMX 트랙	80
[그림 5-5] AIS 컴뱃 센터	82
[그림 5-6] 샤르자 스케이트파크	82
[그림 5-7] 크리브 코어 파크 축구장	83
[그림 5-8] BSWH 스포츠 치료 연구센터	84



제 1 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제 1 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유소년선수의 과학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스포츠종합훈련원

-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북공약으로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제시
 - 주된 내용으로는, 전북 남원에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을 건립하여 영호남과 충청권의 유소년 꿈나무 및 중고등 선수들에게 훈련시설을 제공하고, 비시즌 기간에는 전국의 생활체육 동호인 및 체육인들에게 개방하여 국민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 제공
 -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공약사항에 반영되어 전라북도과 전라북도체육회가 국립 스포츠시설 건립 추진
 -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공약으로도 채택되어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은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가시화
- 현재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전문체육 시설은 태릉선수촌, 태백선수촌 및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이 있고, 평창국가대표선수촌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꿈나무선수 및 청소년대표선수를 위한 종합훈련시설 부재
 - 중앙정부는 전문체육 활성화의 핵심인 우수선수 조기발굴과 체육영재 확보를 위한 우수선수 육성체계로 꿈나무선수, 청소년대표선수, 후보선수 및 국가대표선수라는 4단계 선수양성시스템 운영
 - 그러나 태릉선수촌, 태백선수촌 및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은 국가대표선수 육성을 중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꿈나무선수와 청소년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훈련시설은 부재한 상황
- 꿈나무선수 및 청소년대표선수들에게 과학화된 훈련 환경과 합숙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이 제한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우수선수 확보의 기여라는 선수양성시스템의 목적에 부합하는 건립방안 모색 필요

- 2020년 기준 꿈나무선수 22개 종목에서 846명, 청소년대표선수는 29개 종목에서 904명이 선발되어 총 1,750명이 선발되었으며, 국가대표(730명)와 국가대표 후보선수(1,309명)를 합한 인원은 총 2,039명으로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 대비 85.8% 비율(대한체육회, 2021)
- 그러나 꿈나무선수 훈련 및 관리는 하계·동계 합숙훈련과 전담지도자 순회지도를 통해 종목별로 각기 다른 훈련장소를 이용하고 있고, 청소년대표선수 역시 종목별로 훈련장소를 섭외하여 합숙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효과적인 훈련점검과 통합적인 우수선수 및 경기 관련 정보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종합훈련 시설 건립 필요
- 입지 및 사업 여건 분석을 통한 전라북도와 남원의 경쟁우위를 도출하여 건립 당위성 제시 필요
- 지세, 기후, 교통, 문화, 체육시설, 종목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훈련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종목 제시 필요

■ 비시즌 기간 시설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 비시즌 기간 시설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가대표선수 및 후보선수의 지역거점 국가대표 선수촌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방안 모색 필요
- 접근성 제고, 학업과 훈련의 병행, 종목별 지역 분산을 통한 최적의 훈련장소 제공을 위해 미국 17개소, 일본 38개소, 프랑스 28개소, 호주 8개소 등의 지역거점 국가대표선수촌 운영(김양례 외, 2019)
- 학생선수의 전지훈련 장소 제공 등 이용 수요를 높이는 운영방안 필요

■ 스포츠종합훈련원 연계형 스포츠 산업클러스터 조성

-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은 주변 환경과의 상생발전 계획의 부재로 파급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현대경제연구원, 2019)
- 국가대표선수촌 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후속 사업의 부재로 선진국형 스포츠 생태계를 형성하지 못하였고, 국가대표선수촌 주변 지역의 난개발이 심화되고 있어 선수촌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 가치 훼손 우려
- 국가대표선수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스포츠기업 R&D에 적용 가능한 생태계 요구 확대

- 스포츠종합훈련원과 연계한 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훈련원 내 스포츠산업을 지원하는 스포츠기업 R&D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스포츠 신산업 성장거점의 역할을 수행하는 선진국형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필요
- 국내 스포츠산업 규모는 12년 57조 5천억 원에서 19년 75조 6천억 원으로 약 31.5% 성장하였으나, 스포츠산업의 R&D 투자는 취약
- 국내 스포츠산업의 수출액 비중은 매출액 대비 18년 2.1%, 19년 2.3%. 20년 1.2%로 미미한 수준으로 수출경쟁력이 매우 취약하여 해외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스포츠산업 백서, 2020) 스포츠기업 R&D 지원을 확대하여 국제 스포츠산업 경쟁력을 강화 필요
- 또한 2020년 기준 스포츠산업 매출액의 수도권 비중은 61.4%로 편중되어 있어 전라북도는 전국 대비 1.9%로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스포츠 신산업 성장거점도시 조성 필요

나. 연구목적

- 첫째,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종목 현황, 중앙정부의 스포츠정책 등을 분석하여 건립 필요성 제시
- 둘째, 전북과 남원시의 일반환경 및 스포츠환경을 분석하여 경쟁우위 도출하고, 이를 통한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당위성 제시
- 셋째, 유소년선수 육성시스템, 국가대표선수촌 시설 및 운영, 스포츠산업 지원 현황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기존 국가대표선수촌과 차별화된 단계적 건립 추진 방향 제시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가. 연구 범위

- (연구의 공간적 범위) 전북 및 남원 일원
- (연구의 내용적 범위)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사업의 필요성 및 단계별 추진 방향 제시
 - 첫째, 건립 필요성에서는 유소년선수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과 학업 증진 및 경기력 향상을 제고하는 훈련시설 필요성, 대규모 국제종합경기대회 편입되고 있는 신설종목 육성 필요성, 지역거점 국가대표 훈련시설 설치를 통한 경기력 강화 효율성 제고 필요성,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촉진 필요성 및 연계형 스포츠 산업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을 검토
 - 둘째, 사업 여건 분석에서는 전북 및 남원의 자연, 인문, 체육, 스포츠산업 분야의 환경분석을 통한 건립 관련 경쟁우위를 분석하여 건립 당위성 도출
 - 셋째, 차별화 방안 모색을 위한 현황분석에서는 유소년선수 육성시스템, 국내외 국가대표선수촌의 시설 및 운영, 스포츠산업 지원정책 및 해외 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례 등의 현황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넷째,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추진방향에서는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기존 국가대표선수촌과 차별화된 단계별 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립 규모, 훈련시설 및 종목선정, 연계형 스포츠 산업클러스터 조성방안 도출

나. 주요 연구내용

- 건립 필요성
 - 최상의 유소년선수 육성을 위한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과 학업 증진 및 경기력 향상을 제고하는 훈련시설 필요성 제시
 -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에 편입되고 있는 신설종목의 육성 필요성
 - 지역거점 국가대표 훈련시설 설치를 통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강화 효율성 제고
 -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촉진 필요성 및 종합스포츠훈련원과 연계한 스포츠산업 클러스

터 조성 필요성 제시

○ 건립 당위성 검토를 위한 입지·사업여건 분석

- 전북과 남원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스포츠환경 분야의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관련 경쟁우위 및 여건 분석
-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과 연계한 스포츠 산업클러스터 조성 여건분석을 위한 국내 스포츠산업 환경 분석

○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과 기존 선수촌과의 차별화전략 수립을 위한 현황분석

- 유소년선수 육성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 파악
- 기존 국가대표선수촌(진천, 태릉, 태백) 및 해외 국가대표선수촌 시설과 운영 현황 관련 조사자료를 비교·분석하여 개선점 도출
- 하계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종목의 선수촌 내 훈련시설을 조사하여 기존 선수촌 내 훈련시설이 없는 종목을 중심으로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시설 수용 가능성 검토
- 스포츠산업 지원정책 등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 파악

○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추진전략

- 차별화된 건립방향의 설정, 단계별 추진전략 및 종목선정, 건립 규모 제시
- 이용 수요 파악

다. 연구 방법

■ 정보조사 및 분석 방법

○ 정보조사

- 정보조사는 입지·사업여건 조사에 활용
- 전북 및 남원의 지세, 기후 등의 자연환경, 인구, 가구, 경제, 교통, 문화 등의 인문환경, 공공체육시설,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대회 개최, 전문체육 선수 및 생활체육 동호인, 스포츠정책 등의 체육환경, 스포츠 산업 사업체 및 매출액 등의 통계자료 분석

- 현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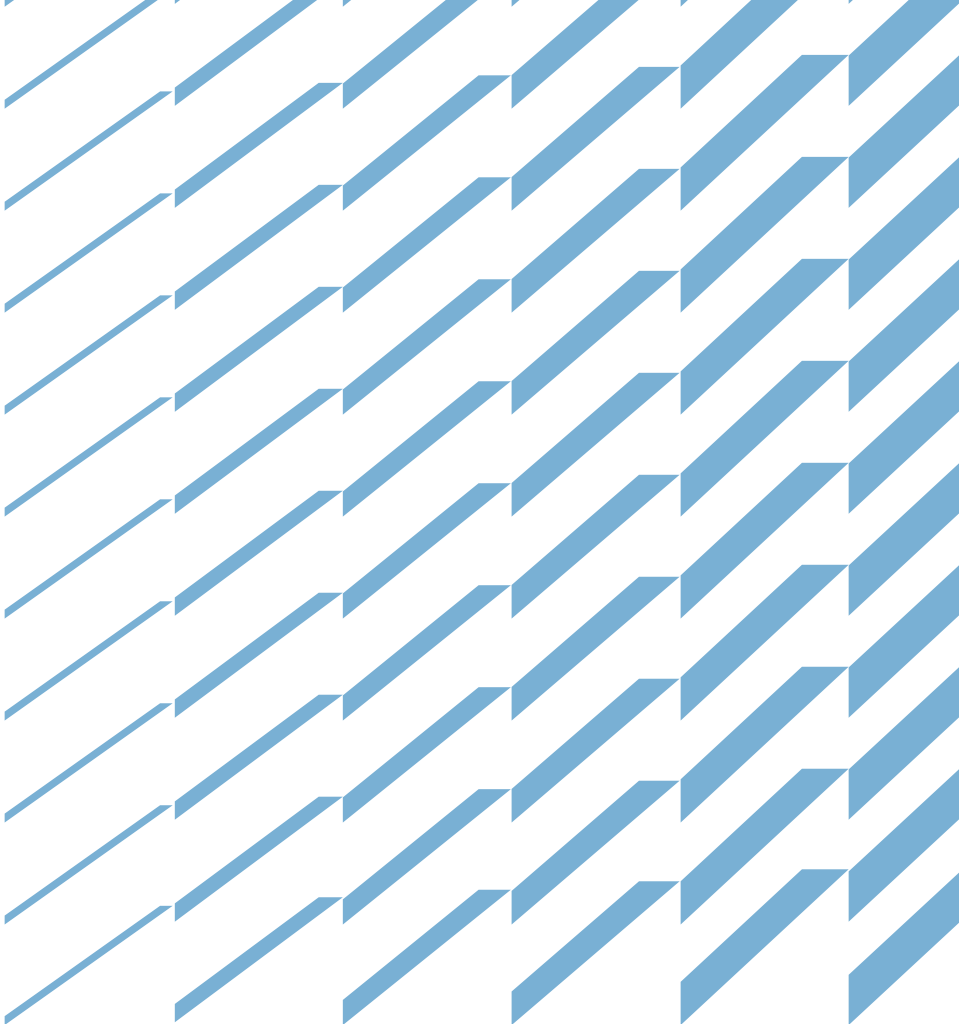
- 현장조사는 연구대상 지역의 주변 여건 파악을 통한 실질적인 대안 발굴에 활용

- 문헌조사

- 문헌조사는 국내외 스포츠종합훈련원의 시설 및 운영 현황조사, 스포츠 산업클러스터 사례조사에 활용
- 진천국가대표선수촌, 태릉선수촌 및 태백선수촌의 시설, 운영, 수용종목 등의 자료 분석과 국가대표선수촌 관련 연구, 정책보고서 등을 분석
- 해외 스포츠종합훈련원 시설 및 현황, 스포츠 산업클러스터 관련 선행연구, 인터넷상의 자료 등을 분석

- 전문가 자문

- 정보 및 문헌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국내·외 스포츠종합훈련원의 시설 및 운영 현황을 추가적으로 파악하고,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훈련시설의 설치, 종목선정, 기타 부대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
- 전문가 회의는 관련 학과 교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하여 실시



제2장

건립 필요성

1. 유소년선수 육성을 위한 종합훈련시설 설치 필요성
2. 스포츠시설의 다변화 필요성



제2장 건립 필요성

1. 유소년선수 육성을 위한 종합훈련시설 설치 필요성

가. 유소년선수 육성시스템 구축 및 체계화

- 문화체육관광부는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유소년 스포츠 기반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회원종목단체별로 진행하고 있어 효과적인 훈련점검이 어렵고, 통합적인 우수선수 및 경기 관련 정보 확보에 한계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공정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고, 꿈나무에서 청소년을 거쳐 후보, 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선수 육성이 시행계획에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 사업을 적시하지 않음
- 최근 국제경기대회에서 국가대표선수들의 경기성과가 정체되어 있는바, 그 원인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 유소년선수 육성시스템 미흡이 거론되고 있어 유소년선수와 국가대표 선수 육성을 상호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는 유소년 스포츠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한 지역 학교의 운동부는 선수 부족으로 인해 팀이 해체되거나 통폐합되는 과정을 겪고 있음
 - 2020년 기준 운동부가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3,948개교로 2016년(4,476개교) 대비 528개가 감소하였고, 학생선수는 56,514명으로 2016년(66,634명) 대비 10,120명, 학교운동부 수는 6,736개로 2016년(7,343개) 대비 607개 감소(문화체육관광부, 2022)
 - 이에 따라 대학부와 일반부 전문체육 선수 역시 감소하는 추세
- 이에 부족한 유소년 스포츠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우수한 경기력을 보유한 선수로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육성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되었음

나. 유소년선수 종합훈련시설 설치

- 정부에서 전문체육 선수들에게 과학화된 훈련 환경과 합숙시설을 제공하고, 경기력을 강화하고자 건립된 선수촌은 진천국가대표선수촌, 태릉선수촌 및 태백선수촌이 있으나 국가대표 육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꿈나무선수 및 청소년대표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종합훈련시설은 없는 상황임
 - 과거 정부 주도의 스포츠 육성 정책을 통한 국력의 상승이라는 단기적인 목표가 국가대표선수에 대한 집중투자로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우수한 경기력을 보유한 국가대표선수를 양성하기 위한 종합훈련시설이 건립되어 오늘날까지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20년 기준 꿈나무선수와 청소년대표선수는 총 1,750명이 선발되어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 대비 85.8%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유소년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숙훈련시설이 부재하여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유소년선수 종합훈련시설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 꿈나무선수와 청소년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합숙훈련은 종합운동장, 학교체육관, 시립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등을 종목별로 섭외하여 실시하고 있어 우수선수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음
- 유소년선수의 육성을 위한 궁극적인 지향점인 전인교육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종합훈련시설은 성장단계에 있는 유소년선수에게 초점을 맞춘 스포츠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 될 것임
 - 미래 대한민국 체육계를 이끌어갈 유소년선수에게 최첨단 시설을 갖춘 훈련장소의 제공은 시급한 과제로써 유소년선수가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의 확대 및 활성화에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임
- 따라서 유소년선수 양성을 위한 종합훈련시설의 건립은 새로운 유소년선수 육성시스템의 첫 번째 성과가 되어야 함
- 또한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최상의 유소년선수 육성을 위한 통합적 관리시스템, 학업 증진 및 경기력 향상을 제고하는 최첨단 시설, 스포츠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공간, 선수 인권 보호시설, 의료재활시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등의 제공을 통해 중도 탈락 없이 국가대표선수로 성장하거나 중도에 선수생활을 포기하더라도 제 2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2. 스포츠시설의 다변화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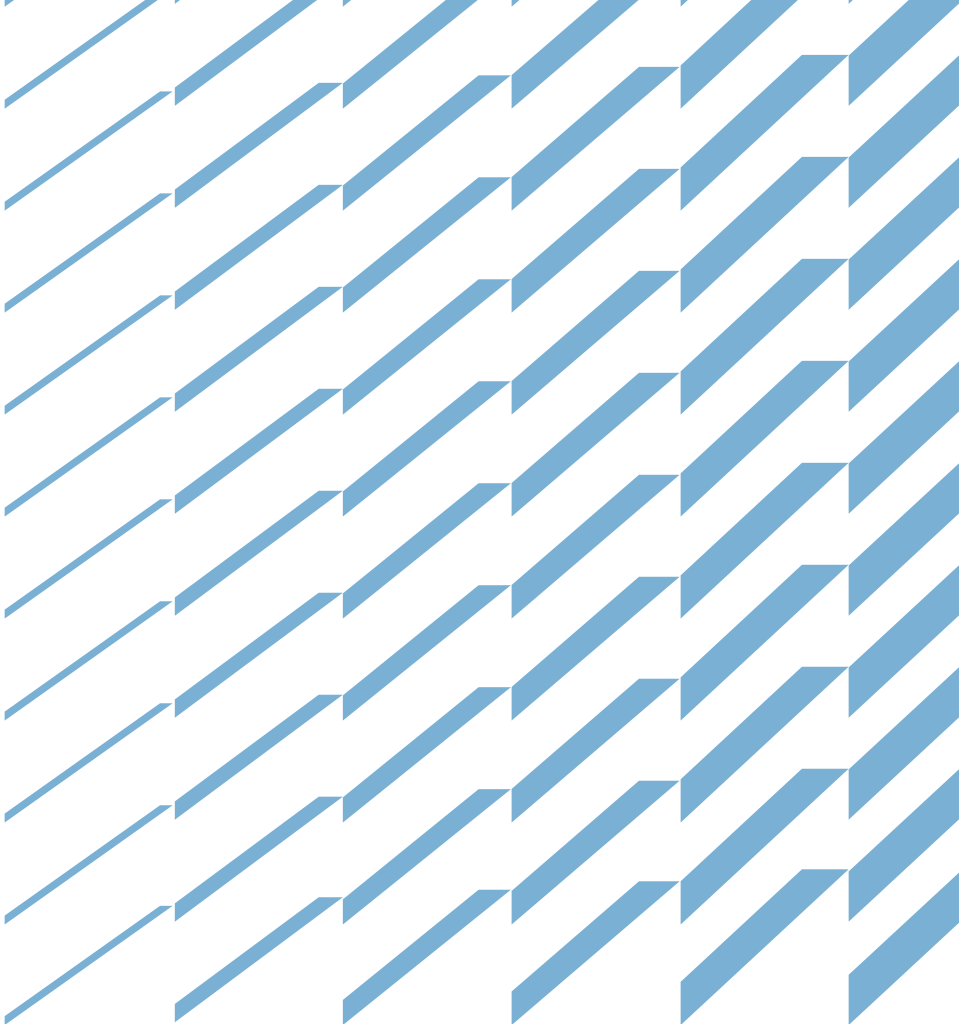
가. 신설종목 수용 통한 국가대표선수촌의 지역 거점화

- 최근 올림픽과 아시아경기대회는 대회의 흥행을 위해 젊은 세대로부터 높은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종목을 신설하는 추세임
 -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스케이트보드, 스포츠클라이밍, 서핑, 사이클의 세부종목인 BMX(레이싱, 프리스타일)가 신설되었음
 -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은 항공스포츠, 브리지, 주짓수, 크라쉬, 모터스포츠, 삼보¹⁾ 등의 종목을 정식종목으로 추가하였고,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브레이킹, e스포츠²⁾를 신설되었음
- 새로운 종목이 정식종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훈련시설의 설치가 요구되나 인천국가대표선수촌 내에는 신설종목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음
 - 익스트림 스포츠인 스케이트보드, 서핑, 브레이킹, BMX, 마인드 스포츠인 브리지, e스포츠, 컴벳 스포츠인 주짓수, 크라쉬 선수 육성을 위한 훈련시설 부재
- 따라서 유소년선수 육성 중심의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이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신설종목 훈련시설 위주로 건립될 경우, 유소년선수뿐만 아니라 신설종목의 국가대표선수들을 위한 훈련시설로도 활용될 수 있어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강화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하계종목 지역거점 국가대표선수촌으로 다변화할 수 있음
 - 미국 올림픽트레이닝센터는 17개 지역거점 올림픽 훈련장소를 통해 특정 종목에 최적화된 훈련시설 제공(김양례 외, 2019)
 - 일본은 국립트레이닝센터가 지정한 38개의 종목별 지역거점 트레이닝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선수들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선수촌을 통해 학업과 훈련 병행 가능
 - 프랑스 국립스포츠연구소는 국가대표선수촌이 수용할 수 없는 종목을 중심으로 지역거점 Grand INSEP 28개소, 호주 스포츠연구원은 종목별 거점 역할을 하는 8개의 지역 국가대표선수촌을 운영하고 있어 선수들의 장거리 이동 불편 해소

-
- 1) 모터스포츠와 삼보는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신설 종목으로 추가되었으나,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제외되었음
 - 2) e스포츠는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시범종목으로 개최된 후,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종목임

나. 스포츠용품 테스트베드 활용 통한 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

- 중앙정부는 스포츠 R&D 확대를 통한 스포츠산업 육성,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함에 따라 전북 남원에 스포츠종합훈련원과 연계한 스포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스포츠 신산업 성장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 구축이 필요함
-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은 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후속 사업의 부재로 선진국형 스포츠 생태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유치 파급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며, 주변 지역의 난개발이 심화하고 있어 선수촌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가치 훼손이 우려됨(현대경제연구원, 2019)
- 미국 올림픽트레이닝센터가 위치한 콜로라도 스프링스에는 59개의 국가 스포츠기구와 국제 스포츠기구가 모여 있고, 스포츠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선도하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대학, 지역 스포츠제품 개발 기업 및 스포츠 관련 제조업들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시너지를 극대화함(김상훈 외, 2018)
 - 프랑스 국립스포츠연구소는 스포츠용품 기업과 연계하여 스포츠용품 개발에 협력하고, 연구성과를 민간 부문과 공유하여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
- 우수한 경기력을 보유한 유소년 및 국가대표 선수와 민간기업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스포츠제품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스포츠산업이 인공지능, AR, VR 등의 신기술과 융합하는 신시장이 출현하고 있어 스포츠종합훈련원, 연구기관, 민간기업, 스포츠기관 등이 집적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연계형 스포츠산업 클러스터의 조성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스포츠기업 R&D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유소년 및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관련 정보를 민간기업과 공유하는 등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국제경기연맹의 공인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스포츠기업 R&D지원센터가 스포츠산업 클러스터의 관리기관이 되어야 할 것임
 - 일본의 스포츠용품은 도쿄올림픽에서 배구, 농구, 수구, 핸드볼, 야구소프트볼, 테니스, 체조 등에서, 중국 제품은 유도, 복싱, 탁구, 역도, 태권도 등에서, 우리나라 제품은 양궁과 태권도에서만 공인 경기 용기구로 사용되어(이종성, 2021. 8. 10) 일본과 중국 기업에 비해 글로벌 인지도와 기술력이 떨어짐



제3장

사업 여건 분석

1. 일반환경 분석
2. 스포츠 및 스포츠산업 환경분석
3. 시사점



제3장 사업 여건 분석

1. 일반환경 분석

가. 자연환경

1) 지형 및 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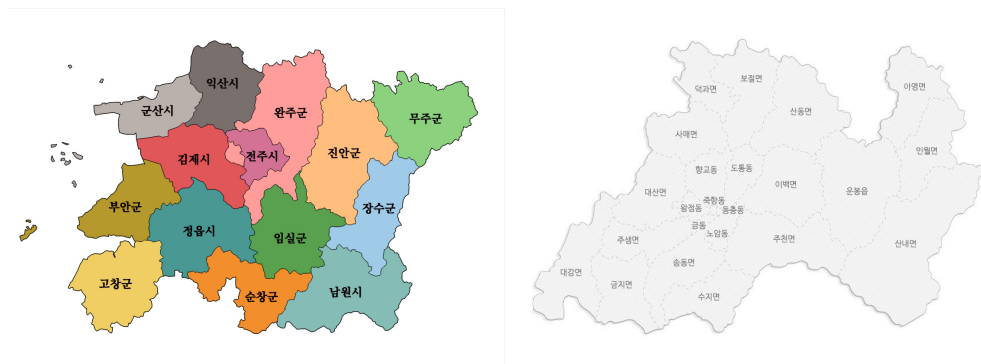
■ 전라북도

- 전라북도는 국토 서남부에 위치하여 북측으로는 금강을 경계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에 접하고, 동측으로 소백산맥 능선을 경계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를, 남측으로는 노령산맥을 경계로 전라남도와 접함(전라북도, 2022)
 - '동남쪽'은 경남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경북의 김천시와 접하고, 소백산맥의 주능선인 반야봉(1,732m), 토끼봉(1,534m), 명선봉(1,586m), 백운산(1,279m), 남덕유산(1,508m), 무룡산(1,492m) 등으로 경계를 이루며, 남쪽'은 전남의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북쪽'은 충남의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충북의 영동군과 접하고, 황해를 건너 중국과 접하고 있음(전라북도, 2022)
- 전라북도는 서쪽 해안선에 군산반도, 진봉반도, 변산반도와 동쪽의 소백산맥, 노령산맥, 진안 분지 등으로 이루어진 동고서저(東高西低)의 지형임
 - ① 전북서해안(군산, 부안, 김제, 고창), ② 전북중부내륙(전주, 정읍, 익산, 완주, 순창), ③ 전북동부내륙(임실, 남원, 장수, 무주, 진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남원시

- 남원시의 동남쪽은 지리산의 주 능선을 경계로 경남 하동군, 전남 구례군과 접하고, 북동부는 경남 함양군, 남쪽 일부는 섬진강을 경계로 전남 곡성과 접하고 있으며, 지형은 크게 산지, 고원, 구릉, 평야로 구분됨(남원시, 2022)

- 산지는 남동부의 지리산지, 천황산(909m) 중심인 북부의 보절산지, 교룡산(518m) 중심의 대강산지로 구분되고, 고원은 보절산지의 서사면, 대강산지의 동사면 및 운봉읍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음(전라북도, 2022)
- 평야는 섬진강 지류인 요천을 끼고 좁고 기다랗게 분포된 남원평야와 운봉·아영·인월에 분포된 운봉평야, 울천 주변의 충적지인 보절평야로 구분되며, 구릉지는 산지주변 및 남원·운봉평야 주변에 분포하고 있어 밭, 과수원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토지이용도는 낮은 편임(전라북도, 2022)
- 지리산 국립공원과 섬진강, 요천을 비롯한 수려한 자연경관과 청정 이미지 보유가 특징
- 남원시의 면적은 752.21km²로 전라북도 전체 면적 8,069.84km²의 9.3%를 차지하는데, 이는 시계에서는 가장 넓은 비중을 차지하고 전체 14개 시·군 가운데서도 완주군(10.2%)과 진안군(9.8%) 다음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함



[그림 3-1] 전라북도 및 남원시 행정구역

2) 기후

■ 전라북도

- 전라북도는 동고서저형의 지형적 특성과 서해의 영향으로 기후는 남북보다는 동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기상청 날씨누리, 2022)
- ‘전북 서해안’은 타지역 대비 기온의 연교차가 작고 습도가 높으며 바람이 다소 강함
- ‘전북 중부내륙’은 해안성기후와 산악성기후 특성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전북동부내

륙'은 기온의 연교차와 강수량의 월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전라북도 연평균기온은 12.5℃, 연 강수량은 1,326.8mm임

■ 남원시

○ 남원지역은 노령산맥과 소백산맥이 서남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분지를 이룬 산악지형으로 기온의 연교차가 큼

○ 남서풍의 바람이 불 때 기온이 올라가고, 하절기에는 남서풍, 동절기에는 북서풍 위주임

- 또한, 지리산의 북서쪽에 위치하여 첫서리가 일찍 내리고, 늦게까지 서리가 내리기도 함

○ 동남단 산간 대분지에 위치하여 내륙성 기후대에 속하므로 대체로 온화한 기후를 보임(남원시, 2022)

- 남원의 연평균기온은 12.5℃이며, 최고기온 19.1℃, 최저기온 6.8℃, 연교차는 26.7℃임

- 가장 더운 8월 최고기온 평균은 30.7℃, 가장 추운 1월 최저기온 평균은 -6.6℃이고, 연 강수량은 1353.2mm인데 여름철(6~8월) 강수량이 773.8mm로 연 강수량의 약 57%를 차지함

- 연평균풍속은 1.4%, 월별 평균풍속은 3~4월(1.8%)에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1] 전북 및 남원의 기후 평년값(1991~2020년)

구분	기온(℃)			평균습도(%)	강수량(mm)	평균풍속(m/s)
	평균	평균최고	평균최저			
전라북도	13.1	18.8	8.3	80	1,316.8	1.7
남원시	13.1	19.3	7.9	73	1,344.0	1.7

자료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나. 인문환경

1) 인구

■ 인구 현황

- 2021년 기준 전라북도 총인구는 1,786,855명, 총 세대수는 849,001세대로 나타남
 - 전주가 약 65만 7천 명(전북 총인구의 36.8%), 29만 3천 2백 세대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익산 27만 8천 명(15.6%), 군산 26만 5천 명(14.8%), 정읍 10만 5천 명(6.0%) 순으로 나타남
 - 남원은 7만 9천 명(4.4%), 3만 9천 7백 세대로 세대당 인구수는 2.0명임
- 전라북도 14세 이하 인구수는 203,363명으로 전체 인구의 11.4%를 차지하고, 남원시는 14세 이하 인구수는 7,936명으로 남원시 인구의 10.0%를 차지함

[표 3-2] 전라북도 사군별 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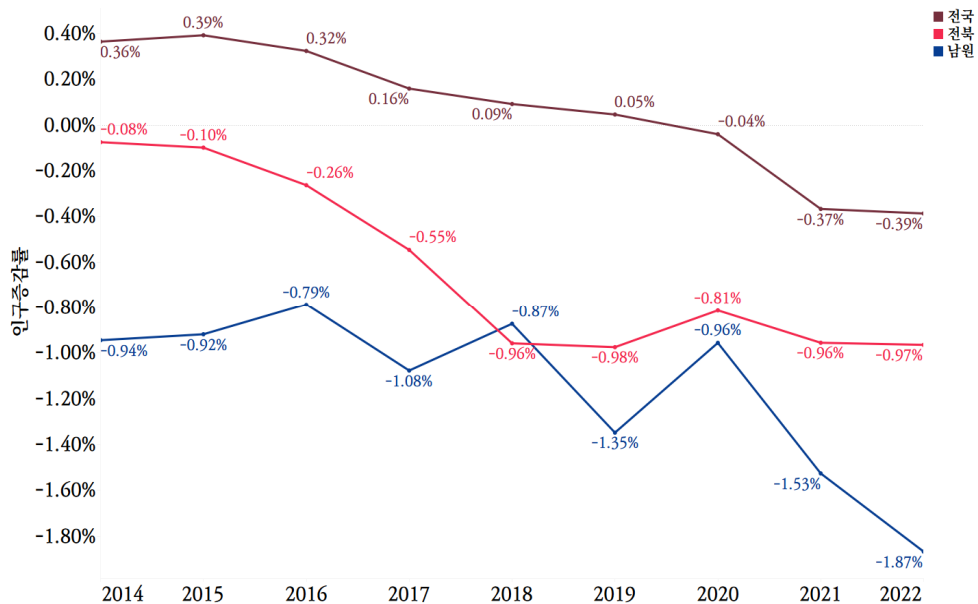
(기준 및 단위 : 2021년 기준, 개, 명, %)

구분	세대수	인구				구성비	세대당 인구수
		14세 이하	15~64세	65세 이상	계		
전북	849,001	203,363	1,185,873	397,619	1,786,855	100.0	2.10
전주	293,207	86,089	468,195	102,985	657,269	36.8	2.24
군산	122,250	32,738	179,852	52,714	265,304	14.8	2.17
익산	129,962	30,353	189,661	58,099	278,113	15.6	2.14
정읍	54,242	10,273	65,653	30,561	106,487	6.0	1.96
남원	39,670	7,936	48,272	23,223	79,431	4.4	2.00
김제	42,509	6,808	47,322	26,783	80,913	4.5	1.90
완주	44,020	10,649	58,298	22,195	91,142	5.1	2.07
진안	13,494	1,907	14,027	9,053	24,987	1.4	1.85
무주	12,823	1,967	13,628	8,153	23,748	1.3	1.85
장수	11,584	1,868	12,111	7,716	21,695	1.2	1.87
임실	14,899	2,087	14,538	10,105	26,730	1.5	1.79
순창	13,996	2,289	15,085	9,481	26,855	1.5	1.92
고창	28,757	4,365	29,979	19,042	53,386	3.0	1.86
부안	27,588	4,034	29,252	17,509	50,795	2.8	1.84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 인구변화

- 지난 9년간 전국의 인구증감률을 보면 2016년부터 인구증가율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2020년 0.04%의 감소율을 보였고, 2022년은 전년 대비 0.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 인구의 연평균 증감률(2014~2022)은 0.06%임
- 2014년 전라북도의 인구는 전국평균 인구변화와는 다르게 0.08% 감소하였고, 2019년까지 전년 대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2년은 전년 대비 0.97% 감소하였음
 - 전라북도의 연평균 증감률(2014~2022년)은 -0.63%로 나타남
- 남원의 2014년 인구감소율은 0.94%로 이미 1%에 근접하였고, 2022년 인구감소율은 1.87%로 전국평균 감소율의 약 4.8배, 전북 감소율의 약 2배로 나타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재구성.

[그림 3-2] 인구변화 추이

2) 교통

■ 전라북도

- 전라북도를 연결하는 도로의 총연장은 8,531km이며, 인구 천 명당 도로연장이 4.7km로 전국 평균(2.1km/천명)보다 높음
- 주요 교통망으로는 남북축의 서해안, 호남, 순천-완주, 통영-대전 고속도로가 있고, 동서축을 연결하는 익산-포항, 광주-대구, 고창-담양 등 7개 노선이 있음(전라북도, 2022)

[표 3-3] 전라북도 도로보급률

구분	도로연장(km)	면적당 도로연장(km/km ²)	인구당 도로연장(km/천명)	자동차당 도로연장(km/천대)
전국	111,314.	1.1	2.1	4.7
전북	8,531.	1.1	4.7	9.2

출처 : 전라북도(2022),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2021~2040).

- 전라북도의 철도는 고속철도와 일반철도가 운행하고, 익산역을 중심으로 남북 방향 위주로 철도가 건설되어 있음(전라북도 2022)

[표 3-4] 전라북도 철도 현황

구분	노선명	운행구간	연장	비고
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서울(용산) ~ 목포	370.6km	고속철도전용선
일반철도	호남선	대전 ~ 목포	191.6km	복선전철
	전라선	익산 ~ 여수	180.4km	복선전철
	장항선	천안 ~ 인산	108.1km	단선비전철

출처 : 전라북도(2022),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2021~2040).

- 전라북도 철도이용객은 2014년 약 9백 5십만 명에서 2018년 1천 1백 3십만 명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4.4%임

[표 3-5] 전라북도 철도이용객 현황(2014~2018)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감률
전북	9,527,871	10,347,850	10,791,234	10,900,642	11,338,243	4.4
함열	136,838	123,955	112,991	103,932	98,051	-8.0
익산	3,900,864	4,477,499	4,855,852	4,793,720	5,101,064	6.9
김제	540,202	478,276	433,671	412,411	417,881	-6.2
신태인	135,074	125,029	115,901	107,328	106,236	-5.8
정읍	1,090,633	1,154,229	1,207,910	1,107,197	1,147,203	1.3
삼례	116,589	112,963	109,830	106,759	117,658	0.2
전주	2,340,432	2,558,479	2,676,783	2,978,841	3,063,088	7.0
임실	65,782	73,627	73,371	73,059	71,513	2.1
오수	100,259	89,305	81,056	78,916	75,098	-7.0
남원	687,739	710,045	698,292	718,049	727,699	1.4
군산	405,097	436,921	418,542	413,711	406,323	0.1

출처 : 전라북도(2022),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2021~2040).

- 전라북도는 여객 및 물류 운송 효율화를 위한 철도망 구축으로 새만금 입안철도 건설, 전라선 고속화철도 건설, 광주~대구(전북 경유) 철도 건설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되어 현재보다 더 편리한 통합철도망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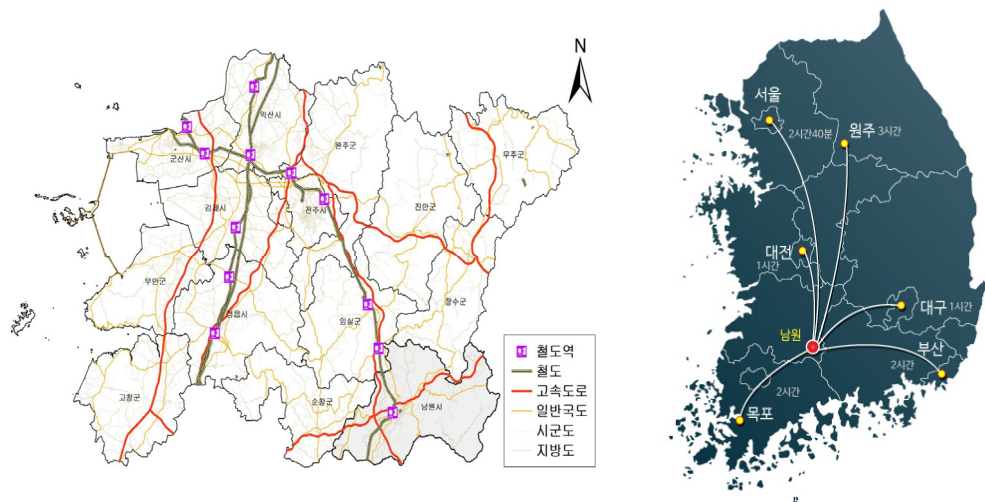
[표 3-6] 전라북도 철도 여건 변화와 전망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새만금 입안철도 건설	총사업비 1조2,953억원, L=47.6km, 새만금항~대야	반영
전라선 고속화철도 건설	총사업비 3조1,140억원, L=168.9km, 익산~여수(전남)	반영
서해안선 철도 건설	총사업비 2조9,828억원, L=151.6km, 새만금~목포(전남)	추가검토
전주~김천 철도 건설	총사업비 2조3,894억원, L=101.1km, 전주~김천(경북)	추가검토
광주~대구 철도 건설	총사업비 4조850억원, L=203.7km, 광주~(전북)~경북대구	반영

출처 : 전라북도(2022),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2021~2040).

■ 남원시

- 남원시는 지리적으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접하는 특징을 지님
- 남원시에는 광주대구고속도로, 순천-완주 고속도로와 전라선 철도(KTX 정차), 그리고 3개 국도노선(17, 19, 24호)이 통과하여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내륙의 관문이자 문화적·경제적 접촉지대임(남원시, 2022)
- KTX, 대구-광주 간 고속도로, 전주-광양 간 고속도로 등 지역 접근성이 양호함
 - 서울에서 남원까지 2시간 안팎으로 소요되는 KTX가 1일 28회 운영
 - 대전 및 대구에서 남원까지 약 1시간 소요
 - 목포와 부산에서 남원까지 약 2시간 소요
 - 광주공항에서 남원까지 약 40분, 무안국제공항에서 약 1시간 30분, 광양항에서 약 30분 정도 소요
- 남원시의 철도이용객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18년 727,699명을 기록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1.4%임



[그림 3-3] 남원시의 지리적 접근성

3) 경제

■ 지역내총생산(GRDP)

- 전북의 2020년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52조 8,205억 원으로 2016년 대비 6.6% 증가
 - 2019년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2018년 대비 2.4% 증가하였으나, 2020년 증가율은 COVID19-팬데믹으로 인해 전년 증가율 대비 1.4%p 감소함
- 남원의 2020년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1조 7,823억 원으로 2016년 실질 지역내총생산 대비 11.9% 증가하여 전북 평균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
 - 2019년에는 1조 7,7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COVID19-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의 증가율은 전년 증가율 대비 6.3%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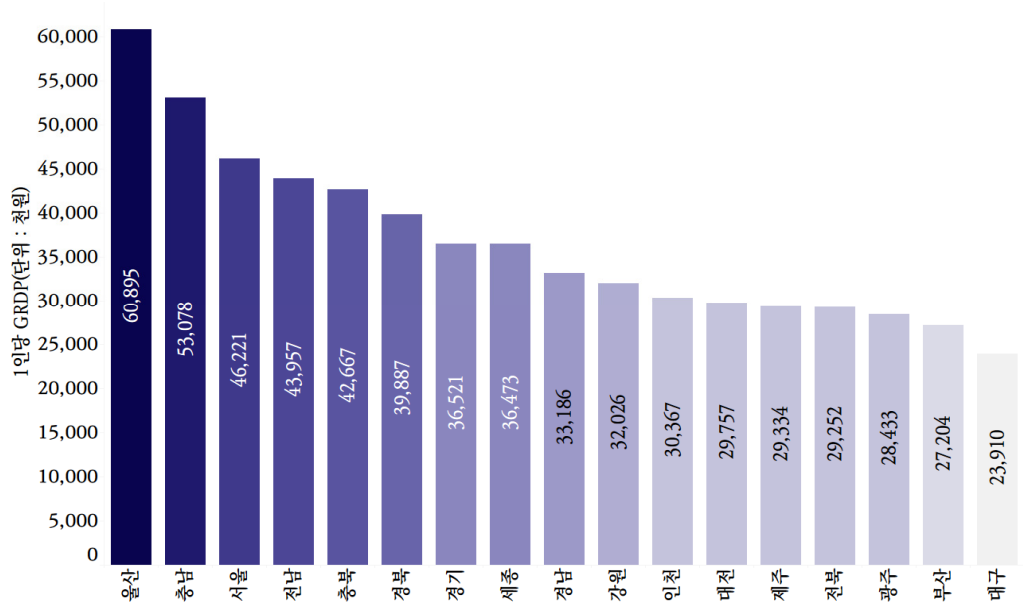
[표 3-7] 전북 및 남원 실질 지역내총생산 추이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북	GRDP	49,986,998	50,538,663	51,062,025	52,276,693	52,820,485
	증감률	0.9	1.1	1.0	2.4	1.0
남원	GRDP	1,677,324	1,632,892	1,659,346	1,772,965	1,782,256
	증감률	-0.1	-2.6	1.6	6.8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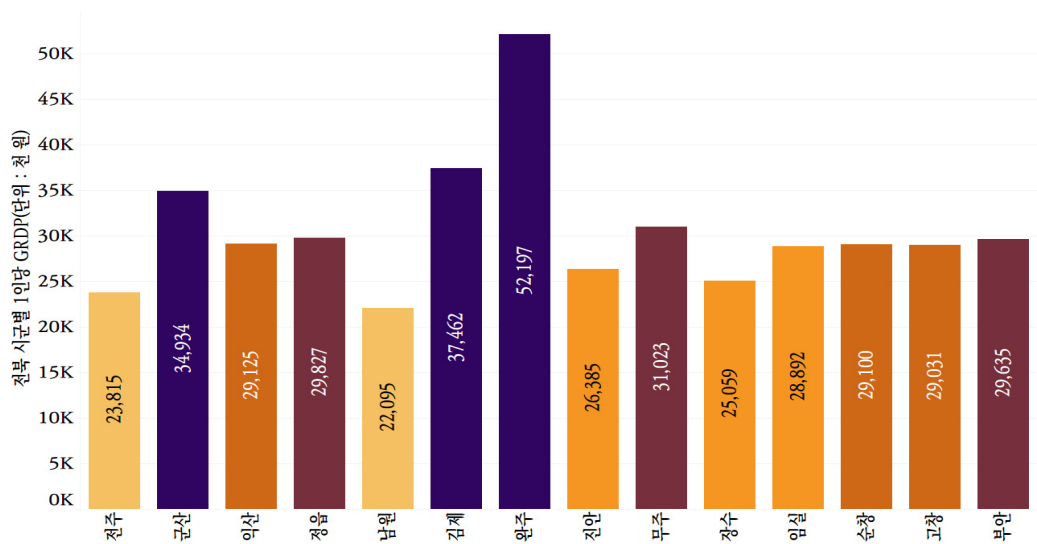
주 :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명목 지역내총생산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금액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재구성.

- 2020년 기준 전라북도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약 2,925만 원으로 전국 중앙값인 경기 3,652만 원보다 727만 원이 적게 나타나 하위권에 속함
 - 시도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울산이 6,09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충남 5,308만 원, 서울 4,622만 원, 전남 4,396, 충북 4,267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남원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약 2,210만 원으로 전북 중앙값인 2,911만 원보다 701만 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그림 3-4] 전국 시도별 1인당 GRDP(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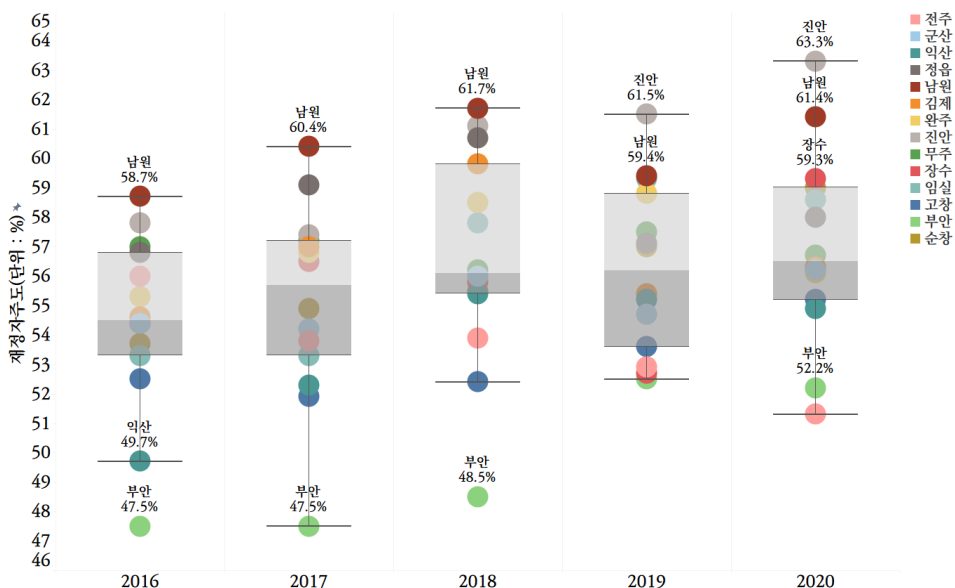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재구성.

[그림 3-5] 전라북도 시군별 1인당 GRDP(2020년)

■ 재정자주도

- 도내 시군의 재정자주도 중앙값은 2016년 54.5%, 2017년 55.7%, 2018년 56.1%, 2019년 56.2%, 2020년 56.5%로 나타나 상승하는 추세임
 - 2020년 기준 시의 평균 재정자주도는 55.6%, 군의 평균 재정자주도는 57.0%이어서 군의 재정자주도가 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대상지인 남원의 재정자주도는 2016년 58.7%, 2017년 60.4%, 2018년 61.7%로 도내 시군 중 가장 높은 재정자주도를 나타냈으며, 2019년 59.4%, 2020년 61.4%로 나타나 진안 다음으로 높은 재정자주도를 기록했음
 - 2020년 기준 진안의 재정자주도가 63.3%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남원 61.4%, 장수, 59.3%, 순창 59.0%, 임실 59.6% 순으로 나타나 시계에서는 남원이 유일하게 재정자주도 상위 시군에 포함됨
 -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군별 평균 재정자주도 상위 3개 지역은 남원(60.3%), 진안(60.2%), 정읍(58.34%)이었으며, 하위 3개 지역은 부안(49.6%), 고창(53.1%), 익산(53.5%)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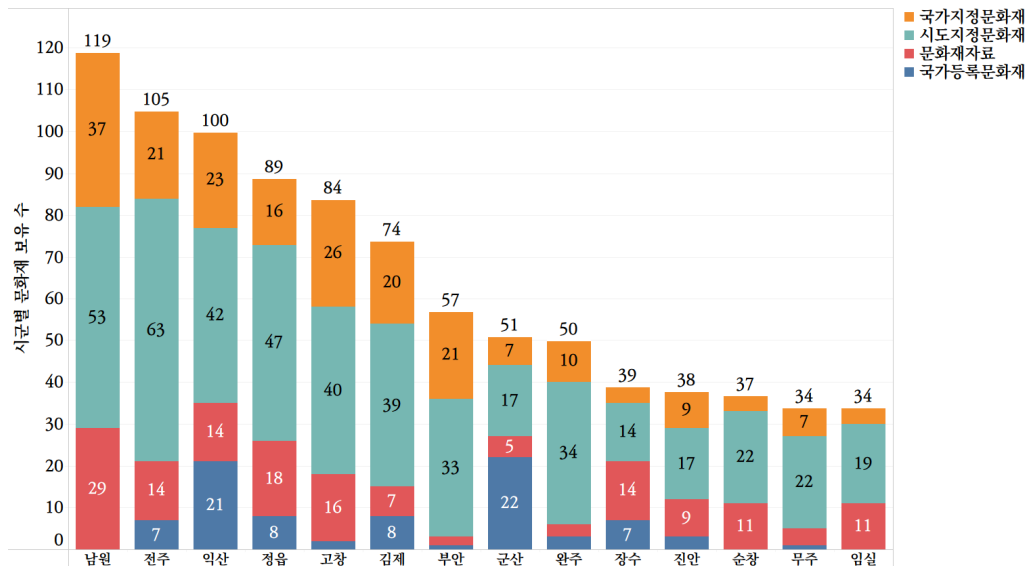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재구성.

[그림 3-6] 전라북도 시군 재정자주도

4) 문화

■ 문화재

- 전북 시군별 문화재 보유 현황 자료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 210개, 시도지정문화재 467개, 문화재자료 157개, 국가등록문화재 86개 등 총 920개의 문화재를 보유함
 - 전라북도가 보유한 문화재 중 국가지정문화재는 보물이 99개로 가장 많고, 사적영승 48개, 천연기념물 32개, 국가민속문화재 1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시도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238개, 기념물 116개, 무형문화재 79개 등의 순으로 많았음
- 남원이 보유한 문화재는 119개로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그다음으로는 전주 105개, 익산 100개, 정읍 89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남원은 광한루원, 만복사지, 남원읍성, 교통산성, 실상사, 가야문화 등 고도의 역사문화 자원과 정유재란, 동학, 판소리, 혼불 등 고전 및 무형 문화자원 등이 풍부하여 문화예술 특화도시를 표방함(전라북도,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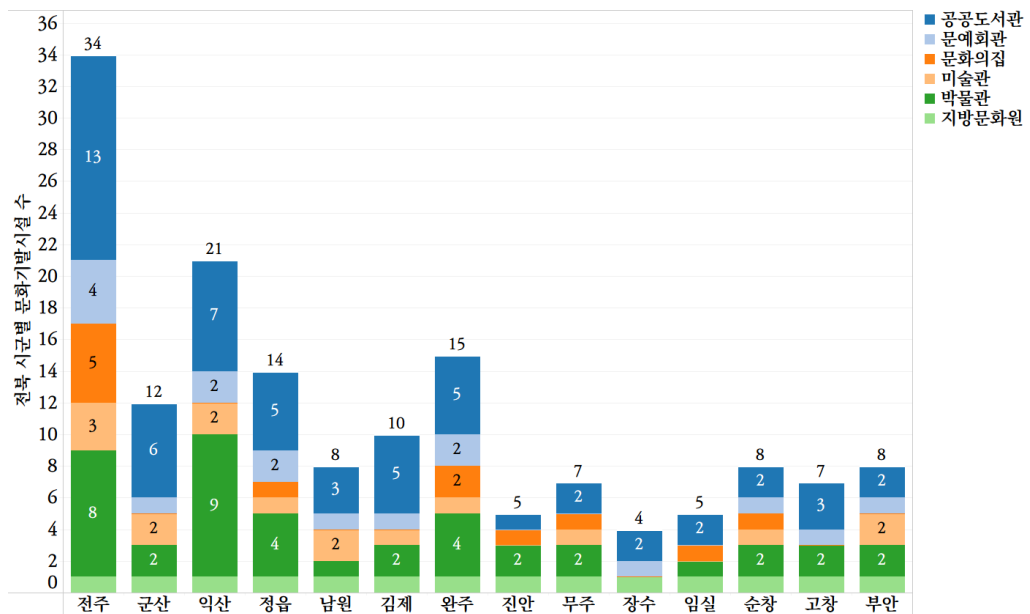


출처 : 전라북도(2022),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2021~2040). 재구성.

[그림 3-7] 전라북도 시군별 문화재 보유 현황(2019년)

■ 문화공간

- 2019년 기준 전라북도의 문화기반시설은 공공도서관 58개소, 박물관 41개소, 문예회관 17개소, 미술관 16개소 등 총 158개소가 있음
 - 전주가 34개소로 가장 많은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익산 21개소, 완주 15개소, 정읍 14개소, 군산 12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문화기반시설이 10개 미만인 지역은 남원을 포함하여 순창 부안 등 8개 시군으로 나타나 지역 간 시설 불균형으로 인한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등 문화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
- 남원의 문화기반시설은 총 8개소로 공공도서관 3개소, 박물관 1개소, 미술관 2개소, 문예회관 1개소 등으로 구성됨



출처 : 전라북도(2022),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2021~2040). 재구성.

[그림 3-8] 전라북도 시군별 문화기반시설 현황(2019년)

2. 스포츠 및 스포츠산업 환경분석

가. 스포츠 환경분석

■ 공공체육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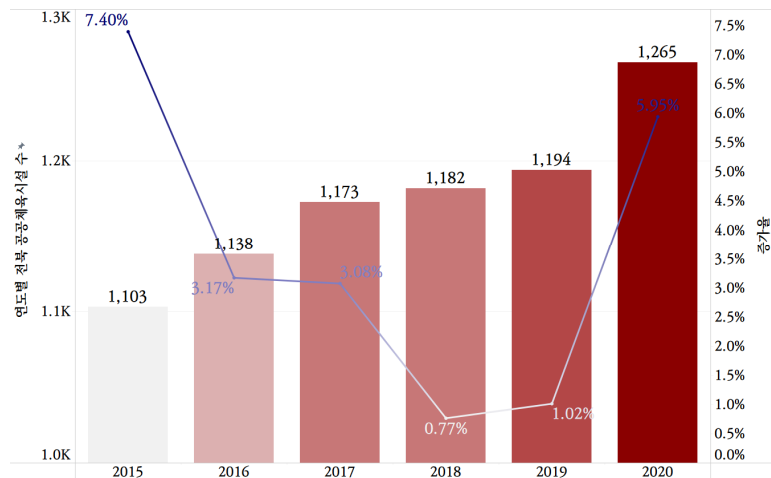
- 전라북도 공공체육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2020년 기준 총 1,265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간이운동장이 766개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게이트볼장 149개(11.8%). 축구장 102개(801%) 등의 순이었음

[표 3-8] 전라북도 공공체육시설 설치 현황

구분	개소			면적(m ²)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계	1,182	1,194	1,265	11,416,922	11,566,574	11,894,389
육상경기장	18	15	15	1,308,336	1,251,731	1,251,731
축구장	100	104	102	3,216,924	3,292,926	3,209,475
하키장	.	.	.	.	.	.
야구장	21	22	22	372,836	425,443	425,443
사이클경기장	1	1	1	33,013	33,013	33,013
테니스장	59	57	57	1,071,310	1,067,273	1,067,273
씨름장	7	7	8	1,084	1,084	1,084
간이운동장	708	708	766	1,647,499	1,647,499	1,663,420
체육관	68	74	78	1,767,282	1,824,979	1,845,839
게이트볼장	142	145	149	862,764	900,283	905,243
수영장	17	18	22	240,395	245,483	350,457
롤러스케이트장	6	6	7	58,255	58,255	63,560
사격장	1	1	1	130,701	130,701	130,701
국궁장	15	15	15	184,395	170,530	174,950
양궁장	2	2	2	102,448	102,448	102,448
승마장	3	3	3	153,634	153,634	153,634
골프연습장	3	3	3	21,790	21,790	21,790
조정카누장	.	.	.	.	.	.
요트장	1	1	1	2,146	2,146	2,146
빙상장	1	1	1	49,520	49,520	49,520
설상경기장	0	0	0	0	0	0
기타시설	9	11	12	192,591	187,837	442,662

출처 : 정지명 외(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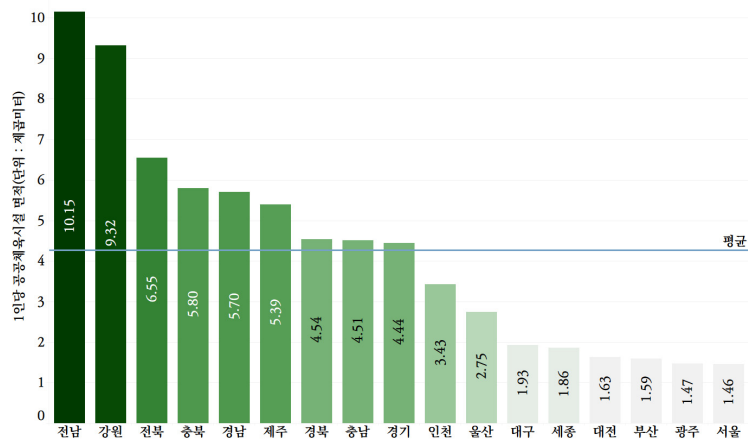
- 2020년 전라북도 공공체육시설은 2015년 대비 14.7%(162개소)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3.6%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2020),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재구성.

[그림 3-9] 연도별 전라북도 공공체육시설 설치 추이

- 전북도민의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은 6.55m²로 전국 평균인 4.27m²보다 넓고, 광역자치단체 중 전남(10.15m²), 강원(9.32m²)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임



출처 : 정지명 외(2021). 재구성.

[그림 3-10] 시도별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2020년)

- 2020년 기준 남원시에 설치된 공공체육시설은 85개소임
- 주요 체육시설로는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다목적구장, 인라인 트랙로드, 문화체육센터, 국궁장, 테니스장, 복싱체육관, 인공암벽장 등이 있음
 - 특히 인라인 트랙로드 경기장은 대한롤러스포츠연맹으로부터 시설공인을 받은 경기장으로써 코리아오픈 국제롤러스포츠대회를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음
 - 춘향골체육공원 내에 조성된 인공암벽장에서는 전국 스포츠클라이밍대회, 회장배 전국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 등을 유치하였음

[표 3-9] 전북 시군별 공공체육시설 설치 현황

(기준 및 단위 : 2020년 기준, 개)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계	186	66	112	104	85	112	77	68	53	43	37	50	96	94
육상경기장	2	1	2	1	1	1	·	1	·	2	1	1	1	1
축구장	11	6	14	11	3	4	23	10	6	6	1	4	1	4
하키장	·	·	·	·	·	·	·	·	·	·	·	·	·	·
야구장	3	4	4	2	1	2	·	1	·	1	1	1	2	·
사이클경기장	1	·	·	·	·	·	·	·	·	·	·	·	·	·
테니스장	3	4	8	3	9	2	3	4	7	6	1	5	3	1
씨름장	·	2	·	1	·	·	·	·	·	1	2	·	1	1
간이운동장	144	32	56	60	52	94	37	26	27	9	13	18	54	71
체육관	7	3	10	5	3	2	5	8	3	8	1	9	10	1
게이트볼장	2	10	12	16	10	4	8	14	9	7	12	9	19	12
수영장	3	2	3	1	1	1	·	1	1	1	1	1	1	1
인라인롤러장	2	·	·	2	2	·	·	·	·	·	·	·	·	·
사격장	·	·	·	·	·	·	·	·	·	·	1	·	·	·
국궁장	·	1	1	2	2	2	·	1	·	1	1	1	3	1
양궁장	·	·	·	·	·	·	1	·	·	·	1	·	·	·
승마장	1	·	·	·	·	·	·	·	·	1	·	1	·	·
골프연습장	2	·	·	·	·	·	·	1	·	·	·	·	·	·
조정카누장	·	·	·	·	·	·	·	·	·	·	·	·	·	·
요트장	·	·	·	·	·	·	·	·	·	·	·	·	·	1
빙상장	1	·	·	·	·	·	·	·	·	·	·	·	·	·
설상경기장	·	·	·	·	·	·	·	·	·	·	·	·	·	·
기타시설	4	1	2	·	1	·	·	1	·	·	1	·	1	·

출처 : 전라북도(2020), 전라북도 공공체육시설 현황.

춘향골 체육공원(종합경기장)

- 위치 : 남원시 충정로 341
- 시설규모 : 부지면적 157,047㎡(주경기장: 29,752㎡)
- 주요시설 : 축구장 1면(7,140㎡), 육상트랙 400m 8레인, 성화대 1
- 현황사진 :



춘향골 다목적구장

- 위치 : 남원시 충정로 341 (월락동 248)
- 시설규모 : 연면적 4,298㎡ / 경기장 면적 3,067㎡(73.2mX41.9m)
※ 테니스 4, 배드민턴 16, 배구 4, 탁구 28
- 주요시설 : 관람석 500석, 조명설비 1식, 주차장(일반 102, 장애인 5)



문화체육센터

- 위치 :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33 일원
- 시설규모 : 부지 면적 40,222㎡, 건축 바닥 면적 1,553㎡, 연면적 2,475㎡
- 주요시설 : 인조 잔디 축구장 1면, 실내 경기장 관람석 496석, 농구장 등
- 현황사진 :



육면테니스장

- 위치 : 남원시 만안로 41-51
- 시설규모 : 부지면적 7,511㎡, 코트 6면(클레이 4,326㎡)
- 주요시설 : 본부석 1동, 화장실 1동, 조명탑 10조, 주차장 등
- 현황사진 :



춘향골 체육관

- 위치 : 남원시 충정로 341 일원 (춘향골체육공원내)
- 시설규모 : 부지면적 23,099㎡, 연면적 7,417㎡(지하1, 지상3) / 경기장 면적 1,694㎡(54.3mX31.2m)
※ 핸드볼, 농구, 배구 등 실내 구기종목 경기용 배드민턴장 9면, 생활 체육용 배드민턴장 12면
- 주요시설 : 관람석 2,000석(본부석 75, 장애인석 24, 관람석 1,900), 주차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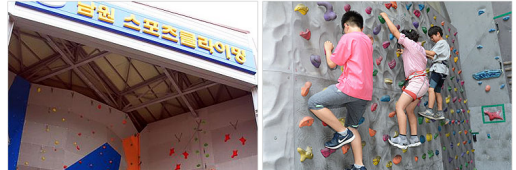
춘향골 체육공원(인라인트랙, 로드)

- 위치 : 남원시 충정로 341 일원 (춘향골체육공원내)
- 주요시설 :
 - 트랙경기장 : 트랙(B=6.3m, L=200m), 인도(B=4.5m, L=200m), 연(건축)면적 249.9(165.4)㎡, 본부석 70석, 라이트 4기 등
 - 야외화장실 : 야외화장실 103㎡(남-여 장애인, VIP용(각반실) 28㎡
 - 로드경기장 : 로드경기장(B=7.0m, L=400m), 인도(B=3.0m, L=200m), 관람석 L=150m, 라이트 16기, 피니시 조명 1식
- 부대시설 : 주차장 포장 45㎡(894), 음수대, 조명, 헬스 등



스포츠헤라이밍(인공암벽장)

- 위치 : 남원시 충정로 341(춘향골체육공원내)
- 시설규모 : 대지면적 157,110㎡
- 주요시설 : 난이도별코스, 스피드경기용, 실내암벽장
- 현황사진 :



신준섭 복싱체육관

- 위치 : 남원시 41-51
- 시설규모 : 부지면적 660㎡, 연면적 528 건축면적 288㎡
- 주요시설 : 사각링 1개소, 관리실 등
- 현황사진 :



출처 : 남원시체육회 홈페이지(<http://www.nwspports.kr>).

[그림 3-11] 남원시 주요 체육시설

■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개최 현황

- 전북은 1997년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7년 WT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19년 남원 코리아오픈 국제롤러대회, 2022년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대회 등을 개최하였고, 2023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2023 전주 월드시니어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를 개최 예정임
 - 1997년 제18회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48개국 1,406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최다국 참가, 최다선수가 출전함에 따라 역대 최대규모의 대회로 개최되었으며, 경기종목은 노르딕(스키점프 포함), 알파인, 바이애슬론, 피겨,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아이스하키 등의 7종목, 53개의 세부종목으로 구성되었음
 - 183개국 1,767명의 선수가 참가한 2017년 제23회 WT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6월 24일부터 30일 까지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개최되었음
 - 2019년 제12회 남원 코리아오픈 국제롤러대회는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전북 남원시에서 개최되었으며, 참가 규모는 14개국 2,187명임
 - 2023년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2023년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26개 종목에서 세계 각국 10,000여 명의 스포츠 동호인이 참가할 예정임
- 2022년 남원시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 현황을 보면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 남원오픈 국제검도대회, 국제 바둑춘향 선발대회 등 총 3회의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였음
 -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는 격년으로 개최하여 남원을 대표하는 국제경기대회로써 스피드 트랙로 드, 슬라럼, 인라인하키 등의 세부종목으로 구성됨
 - 2018년에는 지난 10년간 코리아오픈 국제대회를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18회 아시아롤러스케이팅 선수권대회를 개최한 바 있음
 - 이 대회는 역대 최대규모인 19개국 1,5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음
- 남원시는 2022년 전국마라톤대회,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지리산 자전거대회 등 총 20개의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하여 스포츠에 대한 지역민의 높은 관심도, 우수한 대회 인프라, 시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인 지원이라는 경쟁우위를 지님

[표 3-10] 2022년 남원시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 현황

구분	대회명	대회기간	대회장소	참가규모
국제 대회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	10.27.~11.2.	롤러경기장	1,706
	남원오픈 국제검도대회	6.10.~6.12.	춘향골체육관	3,414
	국제 바둑 춘향선발대회	6.3.~6.6.	춘향골체육관	400
전국 대회	춘향전국마라톤대회	11.17.	춘향골체육공원	600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5.6.~5.7.	테니스장	400
	춘향제기념 공도대회	5.6.~5.8.	남원 관덕정	1,156
	황산대첩기념 공도대회	8.19.~8.21.	운봉 황산정	1,200
	지리산 자전거대회	10월 중	춘향골체육관	400
	전국복싱대회 및 베트남교류전	10.7.~10.8.	용성고체육관	200
	전국킥복싱대회	8.12.~8.13.	사랑의 광장	4,000
	시장기 전국실버 야구대회	10.16.~10.30.	폴리텍 야구장 등	580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9.18.~10.2.	폴리텍 야구장 등	580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8.6.~8.7.	남원문화체육센터	1,770
	전국 스포츠클라이밍대회	9.26.	인공암벽장	250
	문체부 초등 태권도선수권대회	3.18.~3.25.	춘향골체육관	4,230
	전국 배드민턴대회	9.30.~10.1.	춘향골체육관	1,400
	시장기 전국 오픈 탁구대회	3.26.~3.27.	춘향골체육관	1,300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11.18.~11.20.	춘향골체육관	1,000
	전국 남녀 배구대회	9.24.~9.25.	춘향골체육관	2,000
	롤러스포츠타랙 오픈대회	9.3.	롤러전용구장	-
	문체부 전국학생검도대회	8.13.~8.15.	춘향골체육관	600
	전국 게이트볼대회	9.28.~9.30.	춘향골체육공원	1,500
	남원오픈 전국 당구대회	11.5.~11.6.	춘향골체육공원	524

출처 : 남원시체육회 홈페이지(<http://www.nwspots.kr>).

■ 전문체육 선수 및 생활체육 동호인

- 2022년 기준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현황을 보면 경기도 67,404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서울 42,030명, 강원 18,799명, 전북 18,182명 순으로 나타남
- 인구 천 명당 등록선수 수는 전북이 10.27명으로 제주(14명), 강원(12.23명) 다음으로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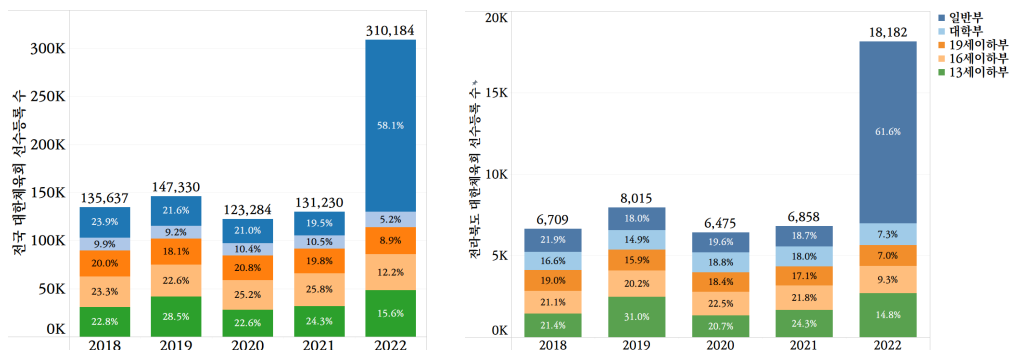
[표 3-11] 대한체육회 시도별 선수등록 현황

(기준 및 단위 : 2022년 기준, 명)

시도	총선수등록 수	13세이하부	16세이하부	19세이하부	대학부	일반부
계	310,184	48,349	37,761	27,647	16,104	180,323
서울	42,030	6,882	5,668	4,654	2,627	22,199
부산	16,081	2,988	2,059	1,569	1,139	8,326
대구	13,221	2,575	1,648	1,120	687	7,191
인천	17,129	3,391	2,514	1,520	468	9,236
광주	11,444	1,770	1,218	826	948	6,682
대전	8,762	1,161	1,097	868	616	5,020
울산	8,832	1,118	804	555	195	6,160
세종	3,403	504	317	125	186	2,291
경기	67,404	10,386	8,247	6,147	2,372	40,252
강원	18,799	2,126	1,756	1,460	833	12,624
충북	12,325	1,695	1,631	1,148	603	7,248
충남	14,244	1,524	1,847	1,299	1,235	8,339
전북	18,182	2,696	1,685	1,269	1,331	11,201
전남	10,930	1,463	1,475	1,064	533	6,395
경북	18,136	2,074	2,104	1,773	1,329	10,856
경남	16,973	2,821	2,237	1,651	746	9,518
제주	9,492	1,623	844	593	248	6,184
기타	2,797	1,552	610	6	8	621

자료 : 대한체육회 스포츠지원포털(<https://g1.sport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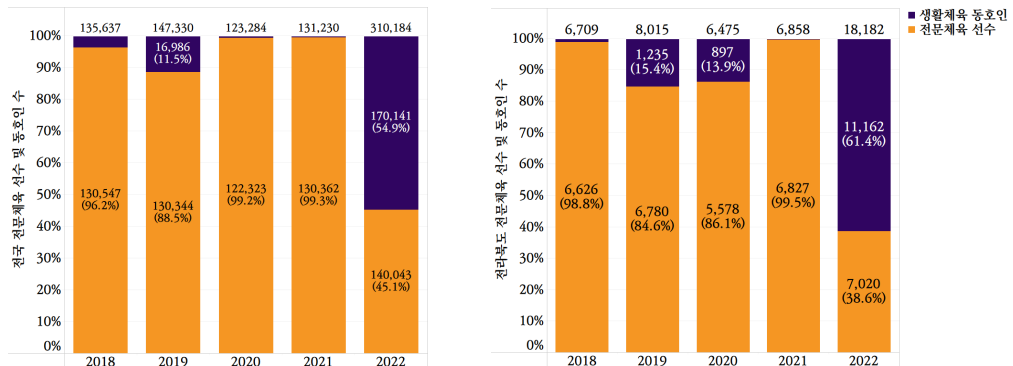
- 2019년 전국의 전문체육 및 동호인 등록선수 수는 약 147,330명으로 2018년 대비 8.4% 증가하였으나, COVID19-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16.3% 감소, 2022년은 전년 대비 136.4% 증가하였음
 - 2019년 등록선수는 전년 대비 11,693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13세이하부 선수 증가에 의한 것이었고, 2022년 증가분은 일반부 선수의 폭발적인 증가에 의한 것이었음
- 전북의 2019년 등록선수 수는 8,015명으로 전년 대비 19.5% 증가, 2020년은 전국 등록선수 현황과 같이 COVID19-팬데믹의 영향에 따라 19.2% 감소, 2020년은 165.1% 증가하여 전국 등록선수 추이보다 변동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증가한 등록선수 수의 상당수는 13세이하부의 증가였고, 2020년 감소분의 상당수 역시 13세이하부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나타남
 - 2022년에는 전년보다 11,324명이 증가하였는데, 일반부 선수가 전년 대비 9,91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추이와 유사함



자료 : 대한체육회 스포츠지원포털(<https://g1.sports.or.kr>). 재구성.

[그림 3-12] 전국 및 전라북도 연도별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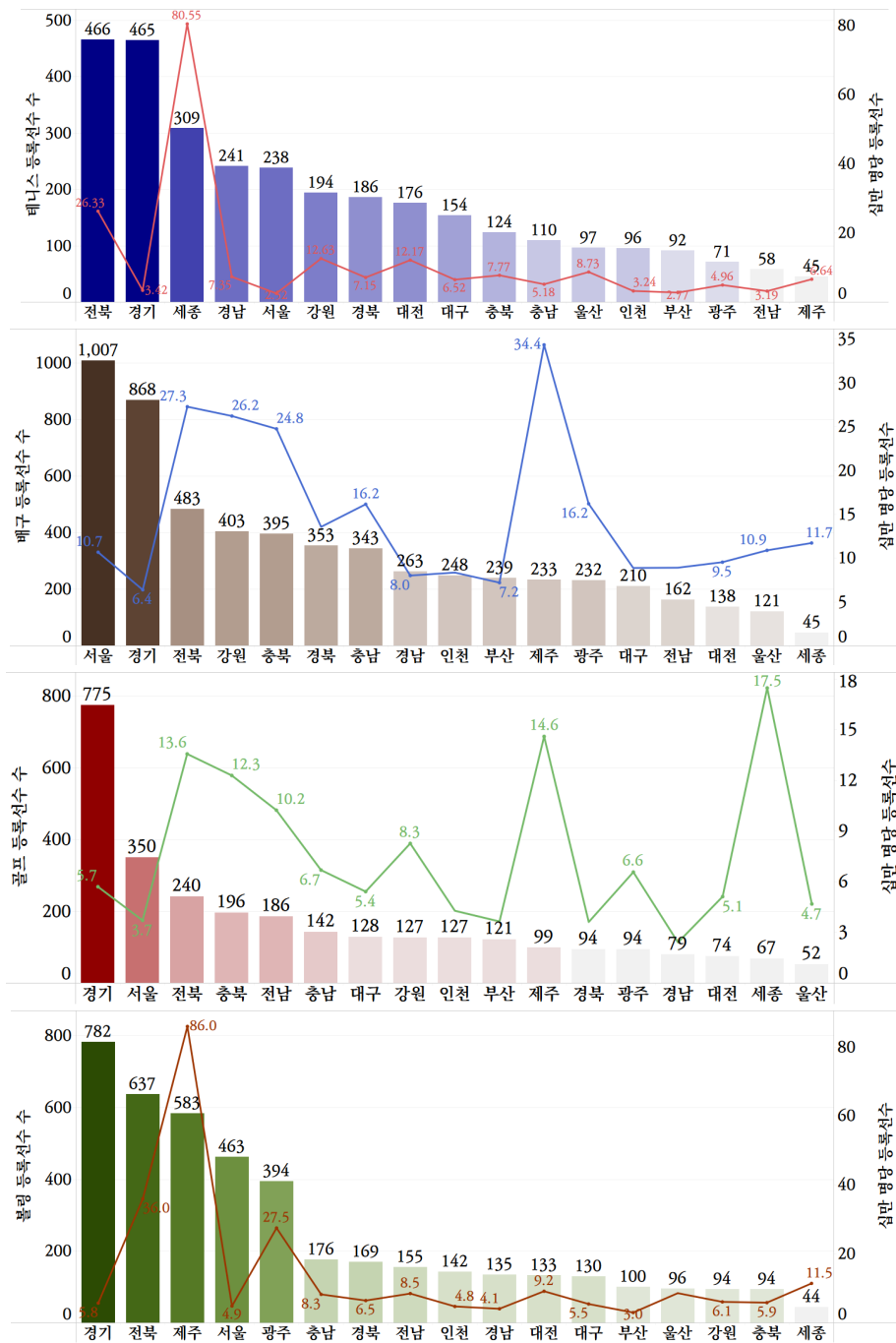
- 2021년까지 대한체육회 등록선수 수는 전문체육 선수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2022년 생활체육 동호인의 비중이 전국 54.9%, 전북 61.4%로 전문체육 선수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 2016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뒤 종목단체별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통합이 이루어진 후,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별로 동호인의 선수등록을 장려한 결과로 여겨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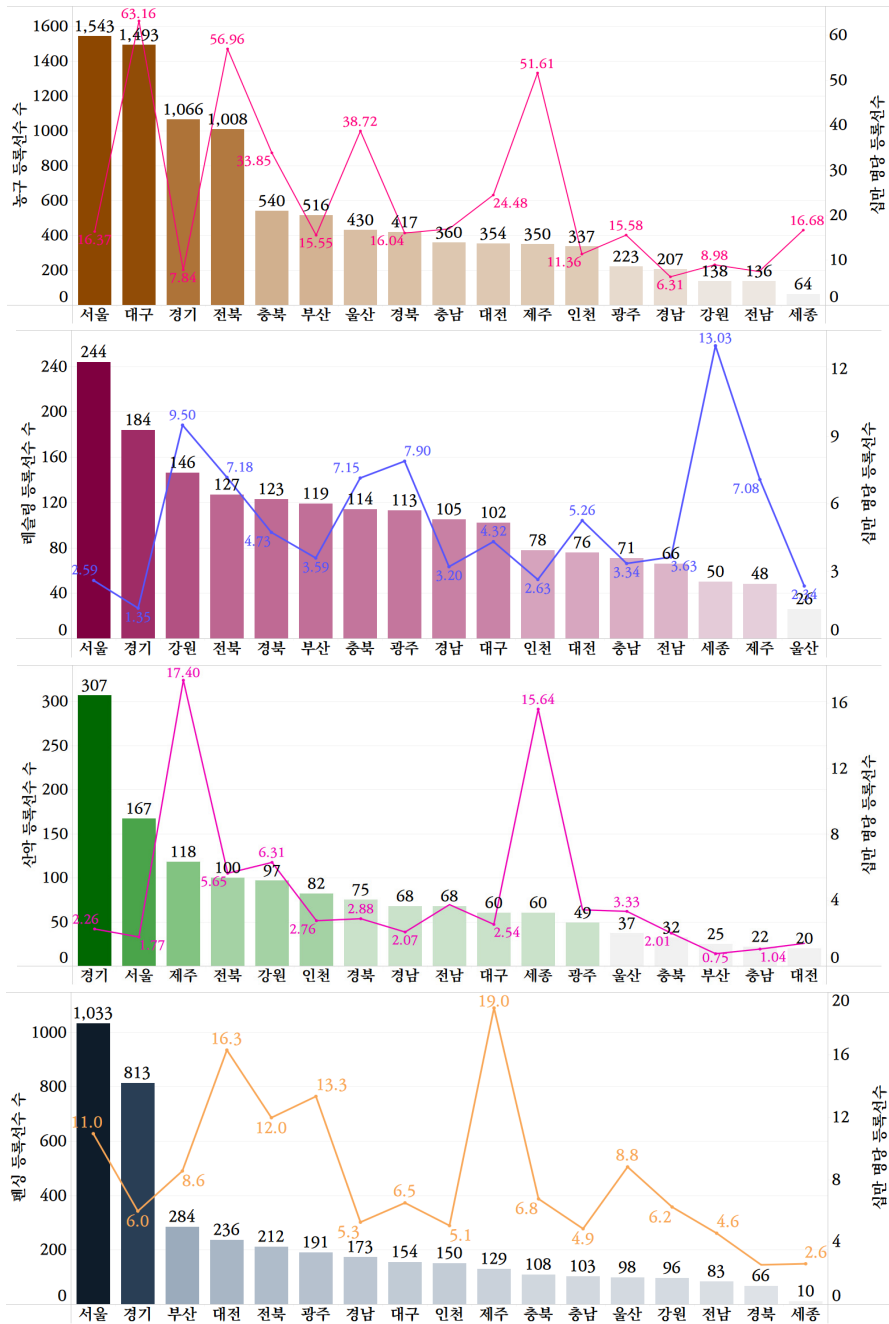


자료 : 대한체육회 스포츠지원포털(<https://g1.sports.or.kr>). 재구성.

[그림 3-13] 전국 및 전라북도 전문체육 선수 및 생활체육 동호인

- 2022년도 전북의 종목별 등록선수는 축구가 8,986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농구 1,008명, 궁도 1,008명, 태권도 741명, 볼링 637명, 야구 517명, 배구 483명, 테니스 466명 등의 순이었음
- 특히 하계종목 중 테니스는 전북이 가장 많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구, 농구, 볼링 등의 종목은 인구가 많은 수도권의 등록선수에 비하여 큰 격차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테니스 등록선수는 전북이 466명으로 전국(3,122명) 대비 14.9%의 비중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경기 465명, 세종 309명, 경남 241명, 서울 238명 등의 순이었음
 - 배구 등록선수는 전북이 483명으로 서울, 경기 다음으로 많았으며, 인구 십만 명당 등록선수는 27.3명으로 제주(34.4명) 다음으로 많았음
 - 전북의 농구 등록선수는 1,008명으로 서울 1,543명, 경기 1,066명에 비해 큰 격차가 나지 않았고, 인구 십만 명당 등록선수는 57명으로 대구(63.2명) 다음으로 많게 나타남
 - 볼링의 등록선수는 전북이 637명으로 경기(782명) 다음으로 많고, 그다음으로는 제주 583명, 서울 463명, 광주 394명 등의 순이었음
 - 레슬링은 서울이 244명으로 가장 많은 선수를 등록하였고, 뒤를 이어 경기 184명, 강원 146명, 전북 127명 등의 순으로 많은 선수를 등록하였음
 - 이 외에도 골프가 240명으로 전국 3번째, 산악 100명으로 전국 4번째이었음





자료 : 대한체육회 스포츠지원포털(<https://g1.sports.or.kr>). 재구성.

[그림 3-14] 2022년도 주요 종목 전북 등록선수 현황

나. 스포츠산업 환경분석

■ 스포츠산업 전체 요약

- 국내 스포츠산업 사업체 수는 2013년 90,493개, 2016년 95,387개, 2019년 105,445개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은 COVID19-팬데믹으로 인해 전년 대비 7.3%로 감소한 97,668개였음
- 스포츠산업의 종사자 수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4.0%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2019년 스포츠산업의 시장 규모는 약 76조 9,870억 원으로 2013년 대비 18.8%로 성장하였고, 연평균 성장률(2013~2019년)은 4.0%이었음
- 그러나 스포츠산업 시장 규모는 내수시장의 성장에 의해 커진 것으로 글로벌 스포츠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3.03%에서 2016년 1.89% 감소하였다가 2019년 2.40%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미미한 수준임
- 이에 따라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이 매우 큼

[표 3-12] 연도별 스포츠산업 전체 요약

(단위 : 개, 천명, 십억 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업체수	90,493	92,293	93,350	95,387	101,207	103,145	105,445	97,668
종사자수	355	373	383	398	424	435	449	376
매출액	66,501	67,040	68,674	71,445	72,451	74,282	75,987	48,025
내수	64,486	65,453	67,609	70,098	71,073	72,666	74,161	47,410
수출	2,016	1,586	1,385	1,347	1,378	1,616	1,826	615
영업이익	7,937	6,205	6,232	6,488	6,279	6,643	6,985	2,033

주 : 표 안의 금액은 명목금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금액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0 스포츠산업조사. 재구성

■ 스포츠산업 현황

- 2020년 스포츠산업 내 사업체 수는 총 97,668개, 이중 스포츠 시설업이 38,279개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2%로 가장 많고, 스포츠 용품업 30,876개(31.6%), 스포츠 서비스업 28,513개(29.2%) 순으로 나타남
 - 스포츠 사업체 수는 경기도가 23,776개로 전체의 24.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서울 17,837개(18.3%), 부산 6,650개(6.8%), 경북 5,172개(5.3%), 대구 4,861개(5.0%), 인천 4,669개(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사업체의 47.4%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영남권 26.1%, 중부권 10.5%, 호남권 10.2% 등으로 분포되어 있음
- 전북의 사업체 수는 3,587개, 전국 10번째로 나타났으며, 스포츠 시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38.4%, 스포츠 용품업 34.3%, 스포츠 서비스업 27.3%이어서 전국 대비 스포츠 용품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7%p 높았고, 스포츠 시설업과 서비스업의 비율은 전국보다 낮았음
- 2020년 기준 스포츠산업의 시장 규모는 약 48조 250억 원으로 COVID19-팬데믹으로 인해 전년 대비 3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스포츠 시설업이 전체 시장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7.7%, 스포츠 용품업 52.9%, 스포츠 서비스업 19.4%이었음
 - 스포츠산업 매출액의 61.4%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사업체 수에 비해 수도권 집중화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시도별 스포츠산업 시장 규모는 서울이 약 15조 7,240억 원으로 가장 컸고, 그다음으로 경기 11조 9,920억 원, 부산 3조 740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북의 스포츠산업 시장은 약 9천억 원으로 중하위권에 속하였으며, 스포츠 시설업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42.2%, 스포츠 용품업 39.8%, 스포츠 서비스업 18.0%로 나타나 사업체 수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스포츠 서비스업의 시장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전북 스포츠 용품업 사업체 수 비율이 전국보다 2.7%p 높게 나타난 반면, 전북 스포츠 용품업 매출액 비율은 전국보다 13.1%p 낮게 나타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체가 전북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3-13] 사업종류별 스포츠산업 사업체 수

(기준 및 단위 : 2020년 기준, 개, %)

구분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용품업			스포츠 서비스업			합계		
	사업체수	비중	순위	사업체수	비중	순위	사업체수	비중	순위	사업체수	비중	순위
서울	6,925	18.1	2	5,135	16.6	2	5,777	20.3	2	17,837	18.3	2
부산	2,310	6.0	4	2,362	4.6	3	1,978	6.9	3	6,650	6.8	3
대구	1,722	4.5	7	1,643	5.3	6	1,496	5.2	5	4,861	5.0	6
인천	1,993	5.2	6	1,288	4.2	9	1,388	4.9	6	4,669	4.8	7
광주	1,084	2.8	13	862	2.8	13	932	3.3	10	2,878	2.9	13
대전	1,056	2.8	14	852	2.8	14	848	3.0	12	2,756	2.8	14
울산	941	2.5	15	678	2.2	15	623	2.2	15	2,242	2.3	15
세종	173	0.5	17	106	0.3	17	187	0.7	17	466	0.5	17
경기	9,290	24.3	1	7,460	24.2	1	7,026	24.6	1	23,776	24.3	1
강원	1,613	4.2	8	1,392	4.5	7	906	3.2	11	3,911	4.0	9
충북	1,412	3.7	11	952	3.1	12	810	2.8	14	3,174	3.2	12
충남	1,579	4.1	9	1,355	4.4	8	1,000	3.5	8	3,934	4.0	8
전북	1,377	3.6	12	1,230	4.0	10	980	3.4	9	3,587	3.7	10
전남	1,418	3.7	10	1,216	3.9	11	836	2.9	13	3,470	3.6	11
경북	2,182	5.7	5	1,688	5.5	5	1,302	4.6	7	5,172	5.3	4
경남	2,510	6.6	3	2,157	7.0	4	1,871	6.6	4	6,538	6.7	5
제주	694	1.8	16	500	1.6	16	553	1.9	16	1,747	1.8	16
계	38,279	100.0		30,876	100.0		28,513	100.0		97,668	100.0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0 스포츠산업 백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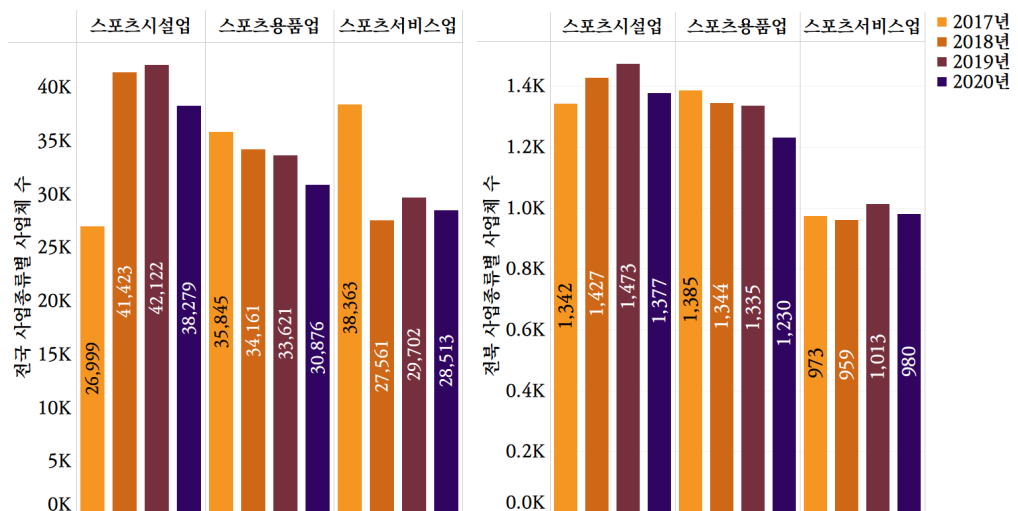
[표 3-14] 사업종류별 스포츠산업 매출액

(기준 및 단위 : 2020년 기준, 십억 원, %)

구분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용품업			스포츠 서비스업			합계		
	매출액	비중	순위	매출액	비중	순위	매출액	비중	순위	매출액	비중	순위
서울	1,456	10.9	2	10,731	42.2	1	3,538	59.4	1	15,724	32.7	1
부산	521	3.9	9	2,259	8.9	3	294	2.1	4	3,074	6.4	3
대구	331	2.5	13	826	3.3	6	362	2.6	3	1,519	3.2	7
인천	514	3.9	10	1,079	4.2	5	198	1.4	6	1,791	3.7	6
광주	177	1.3	16	453	1.8	12	188	1.3	7	817	1.7	14
대전	194	1.5	15	524	2.1	8	157	1.1	9	875	1.8	13
울산	207	1.6	14	269	1.1	15	63	0.4	16	539	1.1	16
세종	48	0.4	17	32	0.1	17	20	0.1	17	101	0.2	17
경기	3,683	27.7	1	4,935	19.4	2	3,374	23.8	2	11,992	25.0	2
강원	1,375	10.3	3	620	2.4	7	150	1.1	10	2,146	4.5	5
충북	814	6.1	6	522	2.1	9	100	0.7	14	1,436	3.0	9
충남	429	3.2	11	496	2.0	10	149	1.0	11	1,073	2.2	11
전북	380	2.9	12	358	1.4	14	162	1.1	8	900	1.9	12
전남	886	6.7	5	431	1.7	13	126	0.9	13	1,443	3.0	8
경북	718	5.4	7	455	1.8	11	136	1.0	12	1,309	2.7	10
경남	1,000	7.5	4	1,336	5.3	4	210	1.5	5	2,546	5.3	4
제주	585	4.4	8	86	0.3	16	70	0.5	15	741	1.5	15
계	13,316	100.0		25,412	100.0		9,297	100.0		48,025	100.0	

주 : 스포츠서비스업 매출액은 체육진흥 투표권 제외 금액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0 스포츠산업 백서. 재구성.

-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스포츠산업 내 사업체 수의 변화를 보면 전국은 2018년 101,207개로 전년 대비 1.9%, 2019년은 2.2% 증가하였고, 2020년은 전년 대비 7.4% 감소함
 - 사업종류별로 보면 2018년 스포츠 시설업 사업체 수는 전년 대비 53.4% 급증하였고, 스포츠 용품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스포츠 서비스업은 2018년 27,561개로 전년 대비 28.2% 감소한 것이 특징
- 전북은 2018년 3,700개로 전년 대비 0.8%, 2019년 3,730개로 2.4% 증가하였으나, 2020년은 3,587개로 6.1% 감소함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스포츠 시설업은 증가, 스포츠 용품업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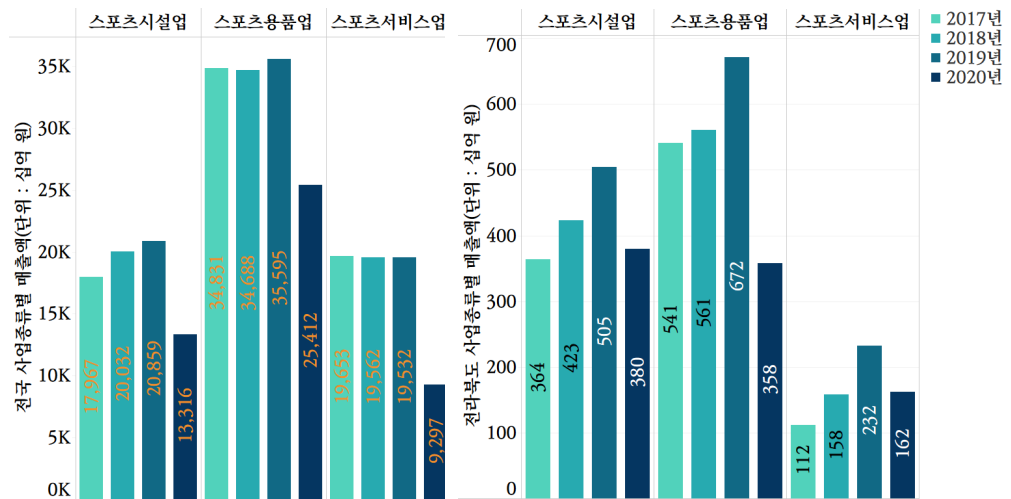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0 스포츠산업조사. 재구성.

[그림 3-15]전국 및 전라북도 사업종류별 사업체 수

- 사업종류별 전국 스포츠산업 시장 규모의 특징은 2019년 스포츠 용품업 사업체 수가 감소한 반면, 매출액은 약 35조 5,950억 원으로 증가하여 이 부문의 사업체별 매출액 규모가 평균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전북의 스포츠산업 시장 규모는 2019년 약 1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3.6% 증가하여 전국(2.7%) 대비 8.7배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20년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약 35.7% 감소한 9백 원으로 나타나 전국 감소율과 유사하였음

- 2019년 스포츠 용품업의 매출액은 약 6,7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8%로 성장하였으며, 전국과 대비하여 스포츠 시설업, 용품업,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어 스포츠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주: 매출액은 명목매출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 매출액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0 스포츠산업조사. 재구성

[그림 3-16] 전국 및 전라북도 사업종류별 매출액

3. 시사점

■ 중부권 이남 종합훈련시설 조성에 최적의 입지적 조건 보유

- 전라북도는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과 인접해 있는 중부권 이남의 중심지로 지역거점 종합훈련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적 조건을 보유함
- 특히 남원은 전남, 광주, 경남과 인접해 있고, 광주대구고속도로,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전라선 철도(KTX 남원역) 및 3개의 국도 노선이 통과하여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내륙의 관문이자 영호남을 포괄할 수 있는 지리적 강점이 있음
 - 향후 전라선 고속화 철도(익산-여수), 광주-대구(전북 경유) 철도 건설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되어 있어 지리적 접근성이 더 향상될 것임
- 또한 남원시는 전북 14개 시군 중 가장 많은 119개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전라북도의 역점시책인 문화·체육·관광산업 연계를 통한 미래성장동력의 창출이 용이함
 - 문화재는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높아 유소년선수의 궁극적 지향점인 전인교육과 함께 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을 통한 경기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문화적 강점이 있음
 - 아울러 2022년 남원시의 연평균풍속이 1.7%로 전국 연평균풍속 2.0%보다 낮아 야외훈련에 적합함

■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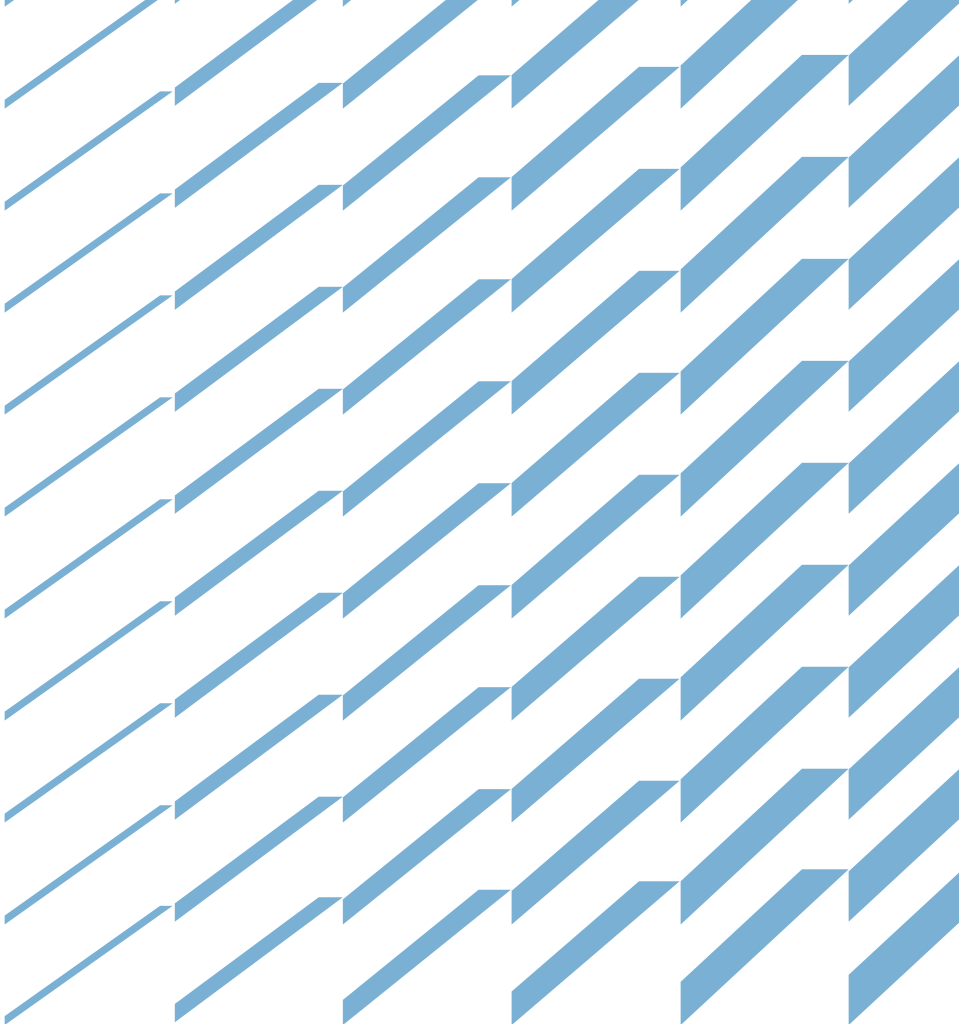
- 2022년 기준 전북의 대한체육회 등록선수는 18,182명으로 전국 네 번째, 인구 십만명당 등록선수는 10.27명으로 전국 세 번째에 위치하여 두터운 선수층을 보유하고 있음
 - 특히 하계종목 중 테니스 등록선수는 466명으로 17개 시도 중 첫 번째, 볼링(637명)은 두 번째, 배구(483명)와 골프(240명) 세 번째, 농구(1,008명), 레슬링(127명), 산악(100명)은 전국 네 번째로 많아 선수 인프라에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음
- 2022년 남원시는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 등 3회의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였고, 테니스, 야구, 축구, 스포츠클라이밍, 탁구 등 20개의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에

대한 지역민의 높은 관심도, 우수한 대회 인프라 구축, 시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인 지원에 의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남원에는 국제규격의 인라인 경기장이 설치되어 있고, 전국규모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스포츠클라 이밍장이 설치되어 있음
- 인접한 시군인 임실에 국제양궁장, 무주에 태권도원 등이 조성되어 있어 우수한 시설의 활용이 가능함

■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상의 지역적 조건

- 2020년 전북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약 2,925만 원으로 전국 중앙값인 3,652만 원 보다 727만 원이 적고, 남원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210만 원으로 전북 중앙값인 2,911만 원보다 701만 원이 적음
- 그러나 남원의 재정자주도는 61.4%로 전북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재정자주도를 보여 재원 활용 능력 면에서는 전북 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전북의 스포츠산업 규모는 COVID19-팬데믹 이전 2019년 약 1조 4천억 원으로 전 년 대비 23.6% 증가함에 따라 전국 대비 8.7배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스포츠산 업의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스포츠산업 사업체의 47.4%, 매출액의 61.4%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특화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시장 규모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 안팎으로 미미한 수준이어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스포츠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스포츠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고,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전북 남원에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스포츠산업의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종합훈련원 내 스포츠기업 R&D지원센터 설치하여 스포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됨



제4장

차별화 방안 모색을 위한 현황분석

1. 유소년선수 육성 현황
2. 국가대표선수촌 시설 및 운영 현황
3. 스포츠산업 지원 현황
4. 시사점



제4장 차별화 방안 모색을 위한 현황분석

1. 유소년선수 육성 현황

가. 유소년체육 육성 현황

■ 유소년 스포츠기반 구축 사업

- 윤석열 정부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체육 국정과제 세부항목으로는 ‘스포츠기본권 보장으로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설정하였음(대한민국정부, 2022)
-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체육활동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디비전리그 지원, 스포츠이용권,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확대, 국민체력인증제 활성화를 추진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소년 스포츠기반 구축 사업’을 실행함
 - 2021년부터 시행된 유소년 스포츠기반 구축 사업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해 유소년 대상 종목의 저변을 확대하고, 유소년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함
- 유소년 스포츠기반 구축 사업의 대상은 초등학생으로 추후 중고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회원종목단체 및 기타 체육 관련 단체별로 주관하여 실시함
 - 주요 항목으로는 유소년 맞춤형 변형 스포츠 모델 개발 지원, 교육 프로그램 및 매뉴얼, 교과과정 등 개발보완, 학교 수업, 학교스포츠클럽 대상 지도자 파견 및 용품 지원 등이 있음
- 이 사업을 통해 유소년 체육활동 참여율 증대와 체력증진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해 국정과제 이행 및 유소년 대상의 스포츠 종목 저변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함

■ 학생 체육 참여 제고

- 문화체육관광부는 입시로 인한 운동 부족과 전문체육 선수 위주의 체육 참여로 인한 일반 학생들의 체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문적인 스포츠강사를 통해 체계적 교육을 실현하고자 함
- 전국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스포츠 강사를 배치하여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여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음
- 더불어 초·중·고 학교와 특수학교의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토요 스포츠 강습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이러한 사업은 적극적인 체육수업과 스포츠클럽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체력증진뿐만 아니라 사회성과 협동심 증진을 도모하고 있는 것임

나. 유소년선수 경기력 제고

■ 우수선수 양성지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공정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음
 - 경기력 제고를 위해 국가대표 국내외 훈련을 지원하여 쾌적한 훈련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2022년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를 지원하고, 유소년 대상 국제대회로 산터우 아시아청소년경기대회도 포함됨
- 성과관리 시행계획에서 꿈나무, 청소년을 거쳐 후보, 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선수 육성이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적 사업을 적시하지 않음
 - 관련 사업으로 체육기금을 활용한 전문체육 육성 항목에서 우수선수 양성지원(국가대표훈련지원)으로 2022년 482억 원이 책정됨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시설 활용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평창기념재단을 통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협업하여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시설의 사후 활용을 통한 올림픽 가치교육 및 동계스포츠 저변확대를 추진함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을 활용해 유소년 대상의 ‘수호랑’과 ‘반다비’ 캠프를 진행하여 포용과 다양성 등의 올림픽 가치를 교육함
 - 수호랑 캠프 : 평창권역 설상종목 및 올림픽가치 교육
 - 반다비 캠프 : 강릉권역 빙상종목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

[표 4-1] 수호랑·반다비 캠프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선수강연	올림픽 또는 패럴림픽 메달리스트의 스포츠 문화 교육
체험활동	바이애슬론, 컬링, 장애인 아이스하키 등 동계종목 체험
올림픽 정신	체육활동을 통해 올림픽과 패럴림픽 가치 교육
문화체험	강원도 전통문화 체험

출처 : 수호랑·반다비 스포츠크램 홈페이지(<https://sportscamp.kr/>).

- 2018평창기념재단은 국내 유소년뿐만 아니라 동계종목을 체험하기 어려움을 겪는 개발도상국 청소년을 위한 ‘드림프로그램’을 운영함
 - 드림프로그램은 평창올림픽의 비전인 ‘새로운 지평(New Horizon)’을 표방하며 2004년부터 2022년까지 95개국 2,398명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함
 - 더불어 캄보디아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신남방 4개국 선수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시키기 위한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언’ 사업도 진행함
- 또한 세계 청년들을 대상으로 올림픽 휴전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인 ‘상상평화캠프’를 국제올림픽휴전센터(IOTC)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진행함
 - 올림픽 평화휴전, 교육, 강연, 스포츠 체험활동을 통한 평화와 휴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국제교류 캠프임

2. 국가대표선수촌 시설 및 운영 현황

가. 국가대표선수촌 현황

- 선수촌은 국가대표와 전문체육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전문체육 시설로써 현재 ‘진천국가대표선수촌’과 ‘태릉선수촌’, ‘태백선수촌’을 운영하고 있음

[표 4-2] 선수촌 현황

구분	진천국가대표선수촌	태릉선수촌	태백선수촌	평창국가대표선수촌
건립연월	2017년 9월	1966년 6월	1998년 6월	
위 치	충북 진천군	서울 노원구	강원 태백시	강원 평창군
부지면적	1,594,870m ²	174,512m ²	32,276m ²	9,653m ²
연 면 적	191,481m ²	54,677m ²	2,538m ²	9,909m ²
총사업비	5,135억 원			221억 원
수용종목	35종목	빙상 등 3종목	전 종목 순환훈련	동계 4종목
수용인원	1,150명	60명	68명	150명
선수숙소	8개동 823실(1.150명)	1개동 238실(301명)	1개동 17실(51명)	
실내 훈련시설	수영센터			동계종목 훈련센터 (스키,봅슬레이,바이 애슬론,루지),
	클라이밍장			
	농구·배구장			
	실내테니스장			
	조정·카누장			
	실내사격장			
	필승관(복싱,카라테,태권 도,우슈,유도)	승리관(유도,탁구)	실내체육관	하계종목 합숙훈련, 후보·청소년·꿈나무 합숙훈련 등 운영 예정
	개선관(역도,볼링,펜싱,레 슬링,체조,실내육상)			
	오륜관(세팍타크로,스쿼 시,탁구,핸드볼,배드민턴)			
	실내양궁장			

[표 계속]

구분	진천국가대표선수촌	태릉선수촌	태백선수촌	평창국가대표선수촌	
실내 훈련시설	빙상장(컬링,아이스하키, 쇼트트랙)	실내빙상장(컬링,아 이스하키,쇼트트랙)			
		국제스케이팅장(스피 드스케이팅,피겨)			
	벨로드롬(자전거)				
실외 훈련시설	제1육상장	인조잔디구장(육상, 하키)	운동장		
	실외테니스장				
	야구·소프트볼장				
	클레이사격장		크로스컨트리코스		
	크로스컨트리트랙				
	하키장				
	력비장				
	실외양궁장				
	다목적필드(육상 등)				
	제2육상장(투척종목)				
부대 지원시설	화랑관(숙박시설)	올림픽의집(숙박시설)	숙소		
	선수식당		선수식당		
	행정센터	행정동	행정동		
	챔피언하우스(행사/회의)				
	학습지원센터				
	웰컴센터				
	웨이트트레이닝센터	월계관(체력단련장)	체력단련실		
	메디컬센터		의무실		
	스포츠과학센터(경기분석)				
	게스트하우스				
	편의시설(매점,도서관,마 사지실,영화감상실 등)	챔피언하우스(영화관, 북카페 등)	휴게시설(노래방,당 구장,PC방 등)		
	하모니하우스(직원숙소)				

출처 : 대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or.kr); 2020·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재구성.

■ 진천국가대표선수촌

-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은 최상의 훈련시설과 쾌적한 훈련환경을 조성하여 국가대표의 경기력을 향상하기 위한 종합훈련원으로 조성됨
 -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은 기존 국가대표 선수촌이던 태릉선수촌의 시설 노후화와 수용인원 한계를 극복하고, 시설 현대화와 과학화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함(문화체육관광부, 2020)
- 태릉선수촌은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 사이에 위치해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공간을 확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시설로 진천국가대표 선수촌이 건립됨
- 2003년 선수촌 장기운영 계획안과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에서 시작된 진천국가대표 선수촌은 2004년 충청북도 진천군을 조성 후보지로 선정한 후 2011년 1단계, 2017년 2단계 준공으로 완성됨



출처 : 대한체육회 홈페이지(<https://www.sports.or.kr>).

[그림 4-1]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조감도

- 현재 유일하게 국가대표 선수촌 명칭을 사용하는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은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선수촌로 105에 위치함
- 공사비 5,130여억 원을 들여 조성된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의 부지면적은 1,594,870㎡(48만 2,448평)로 7,140㎡ 축구장 223개 규모임
-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훈련 가능 종목은 동하계 올림픽과 아시아경기대회 35개 종목으로 선수 수용인원은 1,150명임
 - 1단계 : 농구, 배구, 사격, 소프트볼, 소프트테니스, 수영, 야구, 육상, 조정, 카누, 테니스 등 11종목
 - 2단계 : 근대5종, 럭비, 레슬링, 복싱, 볼링, 빙상(쇼트트랙), 배드민턴, 세팍타크로, 스쿼시, 아이스하키, 양궁, 유수, 유도, 역도, 자전거, 철인3종, 체조, 가라데, 컬링, 탁구, 태권도, 펜싱, 하키, 핸드볼 등 24종목
-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시설은 크게 훈련시설과 지원시설로 구분되고 훈련시설은 실내와 실외, 지원시설은 숙소와 부대시설로 나뉨
 - 실내 훈련시설은 수영센터, 실내테니스장, 조정·카누장, 농구·배구장, 실내사격장, 필승관, 개선관, 오륜관, 실내양궁장, 빙상장, 벨로드롬으로 구성됨
 - 실외 훈련시설은 웨이트트레이닝센터, 제1육상장, 테니스·정구장, 야구소프트볼장, 클레이사격장, 크로스컨트리 트랙, 하키장, 럭비장, 실외양궁장, 다목적필드, 제2육상장으로 구성됨
 - 선수숙소인 화랑관은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로 선수식당과 학습지원센터, 북카페, 마사지실, 영화감상실 등을 갖추고 있고, 외부 손님을 위한 게스트하우스와 직원 숙소인 하모니하우스도 마련됨
 -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은 과학화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목적에 부합하도록 스포츠과학센터와 메디컬센터를 운영 중이며, 그 밖에 행정센터와 챔피언하우스(강당 등), 웰컴센터 등도 설치됨

■ 태릉선수촌

- 태릉선수촌은 체육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1966년 개촌한 후 다양한 시설을 건립하여 종합훈련원으로 조성됨
- 과거 국가대표 훈련의 상징이던 태릉선수촌은 2017년 진천국가대표선수촌 개촌으로 거의 모든 종목의 훈련을 이관하고 빙상 종목만 운영 중임

- 조선왕릉이 200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태릉선수촌 주변이 문화유산 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태릉선수촌 철거 계획에서 8개 시설물 보호를 신청하였고, 4개 시설물은 조건부 보존이 결정되었지만 오륜관, 필승관, 양궁장, 수영장, 영광의 집이 철거됨(문화체육관광부, 2020)



출처 : 대한체육회 홈페이지(<https://www.sports.or.kr>).

[그림 4-2] 태릉선수촌 조감도

- 태릉선수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727에 위치하며, 부지면적은 174,512㎡(5만 2,790평)임
- 훈련 가능 종목은 3종목으로 스피드스케이팅과 피겨, 아이스하키 등 빙상 종목이지만 2020년 이후 스피드스케이팅 한 종목만 훈련하고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20)
 - 실내 훈련시설은 월계관, 승리관, 개선관, 태릉국제스케이팅장, 실내빙상경기장, 크로스컨트리 등으로 구성되고, 실외 훈련시설은 인조잔디구장 1곳만 설치됨
 - 선수 숙소인 올림픽의 집은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238개의 객실과 선수식당을 갖추고 있고, 선수 편의시설인 챔피언하우스는 영화관과 북카페, 당구장 등으로 구성됨

■ 태백선수촌

- 태백선수촌은 태릉선수촌의 부족한 훈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강원도 태백시에 1998년 태백분촌으로 개촌 후 2007년 태백선수촌으로 명칭 변경함
- 태백선수촌은 해발 1,330m 고지대 훈련으로 심폐기능 강화와 지구력 증강을 통해 경기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건립됨



출처 : 대한체육회 홈페이지(<https://www.sports.or.kr>).

[그림 4-3] 태백선수촌 조감도

- 태백선수촌은 강원도 태백시 서학로 266에 위치하며, 부지면적은 32,267㎡(9,763평)임
- 현재 태백선수촌은 국가대표선수뿐만 아니라 회원종목단체 등록선수, 프로팀 선수도 입촌할 수 있음
- 태백선수촌의 훈련시설은 간이체육관과 운동장, 크로스컨트리 코스로 구성됨
 - 간이체육관은 120평 규모로 목재바닥에 농구 골대가 설치되어 있음
 - 운동장은 400m 우레탄트랙 4레인을 갖추고 있고, 크로스컨트리는 소로골코스 6.2km와 사내골코스 7.9km, 더불어 함백산 정상 3.5km까지 활용할 수 있음
- 3인 1실 구조의 선수 숙소는 총 17실로 최대 51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체력단련실, 식당, 물리치료실, 오락실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 태백시는 다목적체육관과 160명 수용이 가능한 선수 숙소를 2025년까지 건립함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홍춘봉, 2021)
 - 다목적체육관은 체력단련실, 실내트랙 등이 설치될 예정임

■ 평창국가대표선수촌

- 2018년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이후 정부는 시설물 활용방안으로 동계 올림픽의 유산을 보전하고 동계스포츠 발전을 위한 평창국가대표선수촌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평창국가대표선수촌은 총사업비 216억 원을 들여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대지면적 9,653㎡,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될 계획임(문화체육관광부, 2022)
 - 스키와 봅슬레이, 바이애슬론, 루지 등 설상종목과 동계종목 훈련센터, 하계종목 순환훈련, 후보선수 합숙 훈련 등 다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임

나. 수용 종목

- 현재 국가대표선수 훈련 중심인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의 훈련 가능 종목은 동하계 올림픽과 아시아경기대회 종목임
- 2020, 2024 올림픽대회에 연속적으로 포함된 종목, 2018, 2022 아시아경기대회에 동시 포함된 종목을 대상으로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내 훈련시설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4개 종목의 훈련이 불가능함
 - 마인드 스포츠 : 브리지, e스포츠, 체스 등 훈련시설 부재
 - 컴벳 스포츠 : 주짓수, 크라쉬, 삼보, 펜각실랏 훈련시설 부재
 - 실외종목 : 축구, 골프, 승마, 인라인스케이트보드, 서핑, 요트, 항공스포츠 등 부재
-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종목 중 일부 세부종목 훈련도 불가능함
 - 사이클의 경우 벨로드롬을 통해 사이클 트랙 종목의 훈련을 할 수 있고 사이클 도로의 일부 훈련이 가능하지만, MTB와 BMX 레이싱 및 프리스타일 훈련시설 미설치
 - 근대5종의 세부종목 중 펜싱, 수영, 사격, 크로스컨트리에는 훈련할 수 있으나 승마장 부재로 승마 훈련은 선수촌 외 시설을 섭외하여 별도 실시
- 최근 올림픽종목으로 신설되고 있는 익스트림 스포츠의 훈련시설은 없음

[표 4-3] 진천선수촌 내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종목 훈련시설

구분	올림픽 종목		아시아경기대회 종목		진천선수촌 내 훈련시설
	2020	2024	2018	2022	
1			항공스포츠*	항공스포츠	
2	수영	수영	수영	수영	수영센터
3	양궁	양궁	양궁	양궁	실내·외 양궁장
4	육상	육상	육상	육상	육상장·다목적필드
5	배드민턴	배드민턴	배드민턴	배드민턴	오륜관
6	야구·소프트볼*		야구	야구·소프트볼	야구·소프트볼장
7	농구·3×3농구	농구·3×3농구	농구·3×3농구	농구·3×3농구	농구·배구장
8			볼링		개선관
9			브리지*	브리지	
10		브레이킹*		브레이킹*	
11	복싱	복싱	복싱	복싱	필승관
12	카누	카누	카누	카누	조정·카누장
13				체스(체스, 바둑, 장기)	
14				크리켓	
15	사이클	사이클	사이클	사이클	벨로드롬
16				드래곤보트	
17			e스포츠(시범종목)	e스포츠*	
18	승마	승마	승마	승마	
19	펜싱	펜싱	펜싱	펜싱	개선관
20	하키	하키	하키	하키	하키장
21			주짓수*	주짓수	
22	축구	축구	축구	축구	
23	골프	골프	골프	골프	
24	체조	체조	체조	체조	개선관
25	핸드볼	핸드볼	핸드볼	핸드볼	오륜관

구분	올림픽 종목		아시아경기대회 종목		진천선수촌 내 훈련시설
	2020	2024	2018	2022	
26	유도	유도	유도	유도	필승관
27			카바디	카바디	
28	카라테*		카라테	카라테	필승관
29			쿠라시*	쿠라시	
30	근대5종	근대5종	근대5종	근대5종	각 훈련시설
31			모터스포츠*		
32			펜카실랏	펜카실랏	
33	조정	조정	조정	조정	조정·카누장
34	력비	력비	력비	력비	력비장
35	요트	요트	요트	요트	
36			삼보*	삼보	
37			세팍타크로	세팍타크로	오류관
38	사격	사격	사격	사격	실내·클레이 사격장
39			정구	정구	테니스장
40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	인라인·스케이트보드	인라인·스케이트보드	
41	스포츠클라이밍*	스포츠클라이밍	스포츠클라이밍	스포츠클라이밍	클라이밍장
42			스쿼시	스쿼시	오류관
43	서핑*	서핑			
44	탁구	탁구	탁구	탁구	오류관
45	태권도	태권도	태권도	태권도	필승관
46	테니스	테니스	테니스	테니스	테니스장
47	트라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	각 훈련시설
48	배구·비치발리볼	배구·비치발리볼	배구·비치발리볼	배구·비치발리볼	농구·배구장
49	역도	역도	역도	역도	개선관
50	레슬링	레슬링	레슬링	레슬링	개선관
51			우슈	우슈	필승관

주 : *는 당해 연도 신설 종목임

출처 :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대한체육회. 재구성.

다. 해외 국가대표선수촌 운영 현황

- 미국 올림픽 트레이닝 센터는 17개의 지역거점 올림픽 훈련장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38개소, 프랑스 28개소, 호주는 8개소의 지역거점 국가대표선수촌을 운영하고 있음(김양례 외, 2019)
- 미국은 콜로라도 스프링스, 레이크 플래시드, 출라비스타에 올림픽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피겨 스케이팅을 제외하고는 수용 종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함
 - 콜로라도 스프링스 올림픽 트레이닝 센터는 실내종목 중심, 레이크 플래시드는 동계종목 중심, 출라비스타는 실외종목을 중심으로 훈련시설 조성
- 일본 국가대표선수촌은 우리나라와 같이 1개의 국가대표선수촌을 중심으로 훈련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나, 국가대표선수촌에서 훈련하기 어려운 종목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 시설을 지정해 운영함(김양례 외, 2019)
 - 해양, 동계올림픽, 패럴림픽대회 종목, 고지트레이닝, 수변계 훈련 등을 목적으로 지역 거점시설 지정 및 운영
- 프랑스는 국가대표선수촌이 수용하지 못하는 스키, 수상스포츠, 승마 등 28개의 지역 거점 훈련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종목 전문체육 선수들의 훈련장소로 제공
 - 프랑스의 레위니옹 CREPS는 주니어선수의 집중 훈련시설로써 주니어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학업을 동시에 집중적으로 교육함
 - 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더블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1주일에 44시간의 수업을 듣고 관련된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데, 국립스포츠연구원의 기준에 맞는 학업 성취도를 달성하지 못할 때 퇴촌 처리함(김양례 외, 2019)
- 호주는 장거리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종목별로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8개의 지역거점 국가대표선수촌 운영
 - 호주 국가대표선수촌은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운동과 학습 병행, 인권 보호와 경력관리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표 4-4] 주요 국가의 국가대표선수촌 운영 현황

구분	미국 올림픽 트레이닝 센터			일본 하이퍼포먼스 스포츠센터	프랑스 국립스포츠 연구소	호주스포츠 연구원
	콜로라도 스프링스	레이크 플래시드	출라비스타			
수용종목	14종목	10종목	9종목	17종목	27종목	
수용인원	500명	96실 규모		488명		
이용 대상	올림픽, 장애인올림픽, 범미주경기대 회 참가자	올림픽, 장애인올림픽, 범미주경기대 회 참가자	올림픽, 장애인올림픽, 범미주경기대 회 참가자	올림픽, 장애인올림픽 참가자	엘리트/ 일반선수/ 주니어선수	엘리트/ 일반선수/ 일반인 모두
훈련 시설	태드 스티븐스 스포츠서비스센터	올림픽 점핑 컴플렉스	비치발리볼 코트	실내(서쪽) 트레이닝센터	요셉 메그로홀	AIS 경기장
	선수센터	올림픽센터	하키장	실내(동쪽) 트레이닝센터	크리스티앙 도리올라	잔디필드
	스포츠센터	스피드스케이팅 오벌	내추럴그라스 필드	육상트레이닝장	넬슨 파이유 컴플렉스	육상훈련장
	수영센터	스키장	이스턴양궁센터	실내테니스코트	컴플렉스 마리 테레즈	인조잔디 축구장
	올림픽사격센터		트랙 앤 필드 컴플렉스		센터 장 르테시에	테니스코트
	사이클벨로드롬		보트하우스 앤 레이크		수영장	체조센터
			수영장		실외훈련시설	수영 풀
			테니스코트			테스트 및 교육 풀
			사이클 크리테리움			피트니스 센터
			BMX 트랙			투기종목센터
			스트렝스 및 컨디셔닝 센터			회복센터
						스트렝스 및 컨디셔닝 센터
지역거점 훈련원	지역 올림픽 훈련장소 17개소			종목별 지역거점 트레이닝시설 38개소	지역거점 Grand INSEP 28개소	종목별 지역거점 AIS 선수촌 8개소

출처 : 김양례 외(2019). 재구성.

3. 스포츠산업 지원 현황

■ 스포츠산업 지원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산업의 혁신기반 조성과 스포츠기업의 재도약을 유도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특히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스포츠 분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함(문화체육관광부, 2022. 12. 28)
 - 이를 통해 스포츠 혁신 서비스 창출과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스포츠산업 지원 사업을 스포츠 금융과 기업경영 지원, 기술개발 및 인증 지원, 일자리 지원, 지역 스포츠산업 육성 등으로 구분함(문체부, 2022. 12. 4)
- 스포츠 금융
 - 스포츠 금융은 융자와 펀드, 융성을 포함하고, 융자는 직접 융자와 이차보전을 분리하여 운영
 - 고금리 상황에서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이차보전은 자금 조달금리와 시장 대출금리의 차액을 보전하는 정책으로 2023년 예산 39억 원 편성(문화체육관광부, 2022. 12. 28)
- 기업경영 지원
 - 스포츠 관련 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과 선도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써 2022년에는 스포츠산업 관련 예비 창업자와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1,800만 원에서 5,400만 원까지 지원
 -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 운영기관을 통해 창업 교육 및 보육 특화 프로그램 제공
 - 기업들의 스포츠 관련 재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재창업 사업을 진행하여 2022년에는 과거 스포츠기업 실패를 경험한 예비 재창업자와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에 창업자금 1,750만 원에서 5,250만 원까지 지원
 - 재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창업 재기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창업도약센터를 통해 창업보육 특화 프로그램 제공
- 기술개발 인증 지원
 - 기술개발 및 인증 지원 사업은 스포츠 기술 프로젝트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을 포함
 - 스포츠 기술 프로젝트는 첨단기술을 스포츠용품에 접목하는 사업으로써 디지털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추진

- 2023년 스포츠 기술 프로젝트 예산으로 125억 원을 배정하여 전년보다 75억 원 증액(문화체육관광부, 2022. 12. 28)

- 스포츠 R&D 지원

- 정부는 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이 분야별로 진행하던 연구개발의 기획관리평가 기능을 통합해 추진하고 관리

- 기타 지원 사업

- 스포츠산업 일자리센터 운영과 인턴십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역특화 스포츠를 관광과 연결하여 지역 스포츠산업을 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 해외 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례

-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 스포츠산업 클러스터

- 콜로라도 스프링스에는 올림픽 트레이닝 센터가 위치하고, 59개의 국제 스포츠 기구 및 국가 스포츠 기구, 스포츠용품 개발 기업, 스포츠 관련 제조업들이 집적화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음(김상훈 외, 2018)

- 스페인 카탈루냐 스포츠산업 클러스터

- 카탈루냐 스포츠산업 클러스터는 스포츠 제품 및 서비스, 스포츠시설, 스포츠 이벤트 등 스포츠 시장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50개 이상의 기업 및 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음(김상훈 외, 2018)

- 스위스 로잔 스포츠산업 클러스터

- 스포츠산업 클러스터의 가장 성공적인 예는 스위스 로잔 스포츠산업 클러스터임
- 스위스 로잔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데, 세계반도핑기구(WADA), 스포츠중재재판소(CAS), 국제종합경기대회 주최 기구, 하계올림픽종목협의회(ASOIF), 동계올림픽종목협의회(AIOWF), 올림픽공인종목협의회(ARISF) 소속 국제경기연맹들이 다수 모여 있음
- 이러한 스포츠기구 중심의 산업클러스터가 연간 평균 2,327억 원의 수입을 발생시킴(김상훈 외, 2018)

4. 시사점

■ 유소년 전문체육 선수 육성 정책 부족

- 정부는 유소년선수 육성을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으로 접근하고 있음
- 유소년 스포츠기반 구축 사업은 학교체육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유소년선수 육성을 위한 시설이 학교 체육시설에 집중되어 있음
- 또한 국가대표선수들의 경기력 정체 이유 중의 하나로 유소년선수 육성시스템 부족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유소년선수와 국가대표선수 육성을 상호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진천국가대표선수촌 훈련시설 부재 종목에 대한 대안 필요

-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은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현대화와 과학화를 통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과거 국가대표 훈련의 상징이던 태릉선수촌은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일부 시설을 철거하였고, 신축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용도 폐기됨
 - 태백선수촌은 고지 훈련을 통한 선수 체력증진을 주목적으로 하기에 해당 종목의 기술개발 등 실력향상과 거리가 있음
- 진천국가대표선수촌 훈련시설과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종목을 비교한 결과 14개 종목의 훈련시설이 부재하고, 일부 종목의 세부종목은 훈련이 불가능함
 - 익스트림 스포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 현실에서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종목으로 채택되고 있지만 기존 시설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평창국가대표선수촌과 다른 차별화 전략 필요

-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물 활용방안으로 평창국가대표선수촌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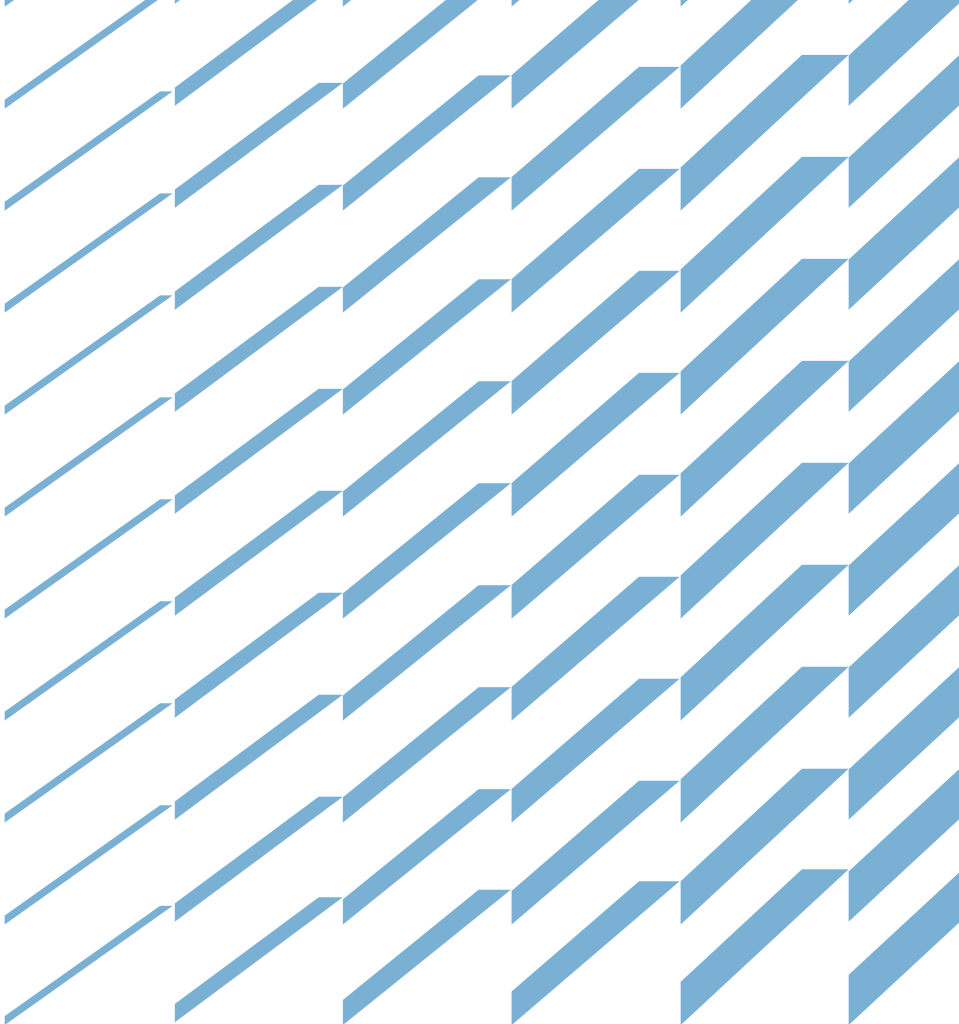
- 평창국가대표선수촌 조성은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수촌 추가 설치에 대한 재원과 효율성 측면에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하계종목 중심의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을 목표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타당성과 당위성 개발이 요구됨

■ 스포츠용품 스타기업 육성

- 스포츠산업 특수 분류 v3.0은 스포츠 시설업과 스포츠 용품업, 스포츠 서비스업으로 구분됨
-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산업 지원은 스포츠 금융과 기업경영지원, 기술개발 및 인증 지원 등 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 도약 전략으로 스포츠 용품업에 치중되어 있으나, 지역의 경우는 특화 스포츠를 관광에 접목하는 스포츠 서비스업에 중점을 둠
- 따라서 지역 차원에서 스포츠 서비스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포츠용품 앵커기업을 유치하여 스타기업으로 도약시켜야 함

■ 차별화

- 태릉과 평창선수촌은 동계훈련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태백은 고지대 훈련에 최적화되어 있어, 하계종목은 진천국가대표선수촌 1개소 중심으로 국가대표 집중훈련을 하는 구조이므로 경기력 강화에 한계가 있음
-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이 수용할 수 없는 종목 중 하계 국제종합경기대회의 신설 종목 훈련시설을 중심으로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이 건립되면, 집적화된 유소년선수 훈련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거점 국가대표선수촌이란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기능을 갖추게 되어 선수들의 경기력 강화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이 스포츠용품 개발의 테스트베드가 되고, 이러한 정보를 민간기업과 공유하는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스포츠기업 R&D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스포츠종합훈련원, 연구기관, 민간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함



제5장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추진방향

1. 건립 방향
2. 종목선정 및 단계별 건립 규모
3. 운영방안



제5장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추진방향

1. 건립 방향

가. 사업 추진전략

■ 1단계 :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 꿈나무선수 및 청소년대표선수에게 과학화된 훈련 환경과 합숙시설을 제공하여 제한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우수선수의 확보의 기여라는 선수양성시스템의 목적에 부합한 종합훈련시설을 제공
 - 성장단계에 있는 꿈나무선수 및 청소년대표선수에게 초점을 맞춘 스포츠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전인교육과 경기력 향상을 실현할 수 있는 시설 마련
- 수면의 질을 높이는 선수 숙소와 더불어 최상의 유소년선수 육성을 위한 통합적 관리 시스템, 다양한 관점이 융합된 사공간 조성을 위한 최첨단 시설, 학습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는 시설 구축
 - (최첨단 시설) 유소년선수의 경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와 훈련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되어 대형스크린에서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생체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기록되는 시스템이 장착된 최첨단 트레이닝 센터 구축
 - (학습권) 훈련과 학업을 병행하는 유소년선수 양성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영상강의, 대면강의, 보충수업이 가능한 '학습지원센터' 설치
 - (건강권) 경기와 훈련으로 지친 유소년선수의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헬스케어, 유소년의 심리와 정서적 안정을 책임질 상담과 멘탈 트레이닝 및 영양 관리를 위해 의료시설과 재활시설을 갖춘 '스포츠 헬스케어 센터' 설치
 - (인권) 선수 생활을 중도에 포기하는 원인이 폭력과 폭언, 비윤리적인 처사, 인권침해 등에 있으므로 선수와 지도자가 함께 스포츠 윤리와 인권을 주제로 토론하고 교육받는 '인권보호센터' 설치
-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종목 중 기존 국가대표선수촌에서 훈련시설이 없는 종목과

전북과 남원이 경쟁우위에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를 조성하여 지역거점 국가대표선수촌의 기능 수행

■ 2단계 : 지역거점 국가대표선수촌 기능 강화

- 수용 종목 확충으로 하계종목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강화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역 거점 국가대표선수촌 기능 확대
 - 특정 종목에 최적화된 시설을 제공하고, 선수들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학업과 훈련, 일상생활과 훈련 병행이 가능하도록 지리적 접근성 제고
- 유소년선수와 국가대표선수 및 후보선수의 직업 탐색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시설 확충
 - (직업 탐색권) 다양한 스포츠 관련 직업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스포츠 잡(job) 센터'를 설치하여, 스포츠기자, 경영자, 마케터, 행정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설) 경기 및 훈련 후 재충전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인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영화관, 게임룸, 노래방, 공연장, 감성카페, 셀프사진관 등 선수의 감성과 일상에 맞춘 '오픈 플레이센터' 설치

■ 3단계 : 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

- 정부는 스포츠 R&D 지원을 통해 스포츠 신산업을 육성하여 스포츠산업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이에 발맞추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포츠제품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이 민간기업이 개발한 스포츠제품의 테스트베드 기능을 수행
- 경기용품 사용에 의한 선수들의 경기력 정보를 민간기업과 공유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스포츠기업 R&D지원센터'를 훈련원 내 설치
- 선수와 민간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스포츠 관련 기관과 민간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스포츠기업 R&D지원센터가 클러스터의 관리기관 역할 수행

나. 사업 대상 후보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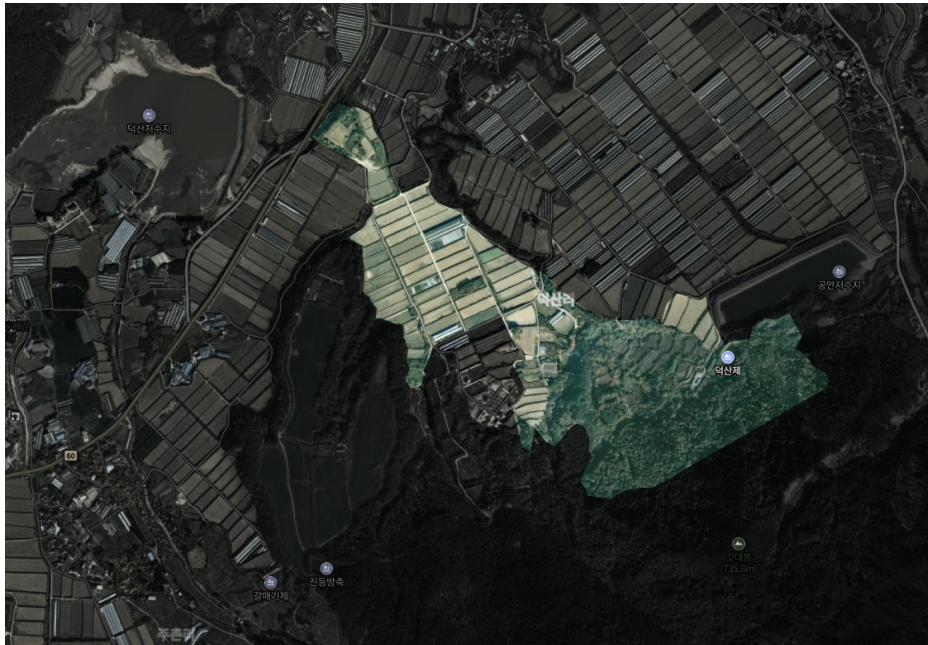
1) 입지평가 기준

- 접근성
 - 지역거점 국가대표선수촌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의 시설활용도 제고를 위해 도로 및 철도에 의한 교통 접근성을 고려해야 함
 - 여기서는 남원IC, 서남원IC, 남원역(KTX), 남원공용버스터미널과의 거리를 측정하여 평가
- 경제성
 -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에는 많은 조성사업비가 발생하고 대규모 용지가 사용되므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을 고려해야 함
 - 여기서는 조성 대상 후보지의 공시지가를 활용하여 평가
- 추진 용이성
 -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공유지의 활용이 가능해야 하고, 사업 대상 부지의 확보가 용이해야 할 것임
 - 여기서는 조성 대상 후보지의 국공유지 비율로 평가
- 훈련시설 활용성
 - 한정된 공공재원으로 건립되는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이 최적의 훈련환경을 확보하고 이용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체육시설과 인접해 있어야 함
 - 여기서는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를 개최한바 있는 경기시설과의 접근성으로 평가
- 생활 편의성
 - 선수촌에 입촌한 선수, 지도자, 직원, 방문객 등의 생활과 업무 편의를 위해 문화시설, 숙박시설, 행정시설 등의 이용이 편리해야 함
 - 여기서는 조성 대상 후보지 주변의 사회기반시설 확보 수준으로 평가

2) 사업 대상 후보지

■ 덕산지구

- 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일원
- 면적 : 412,569m²(124,802평)
- 용도지역 :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소유 구분 : 국공유지(180,573m²), 사유지(231,996m²)
- 입지 여건
 - 해발 500m 이상의 산악지대로 지리산과 연계한 산악 훈련이 용이하여 심폐기능 강화 및 지구력 증강에 적합
 - 주변과 독립된 종합훈련시설 공간으로 조성 가능



[그림 5-1] 덕산지구 부지 현황도

■ 용산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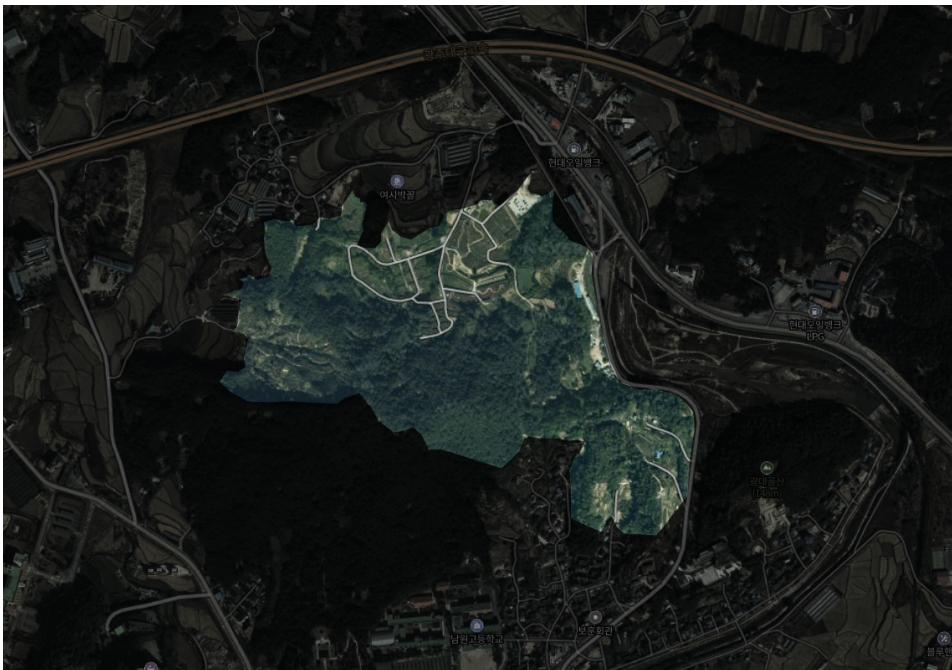
- 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일원
- 면적 : 433,500m²(131,134평)
- 용도지역 :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 소유 구분 : 국공유지(433,500m²)
- 입지 여건 :
 - 읍 소재로부터 인접하고 있어 행정상 편리하고, 발전에 지리적으로 유리한 입장
 - 산악지대로 고지대 훈련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부지확보가 상대적으로 유리



[그림 5-2] 용산지구 부지 현황도

■ 신생마을(용정동)

- 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용정동 일원
- 면적 : 287,201m²(86,878평)
- 용도지역 :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 소유 구분 : 국공유지(224,574m²), 사유지(62,627m²)
- 입지 여건
 - 국도 17호선(중동~제천)과 군도 13호선(제천~낙동), 전라선 철도가 통과하고, 특히 남원역(KTX), 남원 버스터미널과 인접하고 있어 교통 접근성 우수
 - 남원 시내와 인접하여 행정시설, 문화시설, 숙박시설 등 활용 유리



[그림 5-3] 신생마을(용정동) 부지 현황도

2) 검토 결과

○ 접근성

- 신생마울은 남원C로부터 1.3km, 서남원C로부터 8.5km, 남원역(KTX)으로부터 2.6km, 남원공용버스터미널로부터 2.0km 지점에 위치하여 평균 거리가 3.6km로 나타나 세 후보지 중 접근성의 상대적 입지 우위도가 높음
- 덕산지구는 남원C로부터 11.2km, 서남원C로부터 17.0km, 남원역(KTX)로부터 14.1km, 남원공용버스터미널로부터 11.7km 떨어져 있고, 네 지점과의 평균 거리가 13.5km로 나타나 접근성의 상대적 입지 우위도는 중간임
- 용산지구는 남원C로부터 13.0km, 서남원C로부터 20.2km, 남원역(KTX)로부터 16.5km, 남원공용버스터미널로부터 14.2km 떨어져 있고, 평균 거리가 16.0km로 접근성의 상대적 입지 우위도는 후 순위로 나타남

○ 경제성

- 용산지구의 공시지가가 3,790원(m²)으로 가장 적어 경제성에서 상대적 입지 우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덕산지구 13,900원, 신생마울 19,900원 순임

○ 추진 용이성

- 용산지구의 국공유지 비율이 100%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신생마울 78.2%, 덕산지구 43.8%로 나타나 용산지구의 사업 추진 용이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훈련시설 활용성

- 춘향골체육공원에 조성된 인라인롤러경기장은 국제대회를 지속하여 개최할 정도로 국제규격을 갖추었으며, 인라인과 스케이트보드의 주관 경기단체인 대한롤러스포츠연맹의 시설공인을 득하였음
- 동 공원에 설치된 스포츠클라이밍장은 전국 스포츠클라이밍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격을 갖추고 있음
- 신생마울과 춘향골체육공원까지의 거리는 1.9km, 덕산지구 10.4km, 용산지구 12.2km로 나타나 신생마울이 훈련시설 활용성 측면에서 상대적 입지 우위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생활 편의성

- 신생마울은 반경 3km 이내에 도통동, 동충동, 금동, 죽향동, 왕정동 등 10개의 법정동이 있어 병원, 학

교, 숙박시설, 문화시설, 행정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음

- 덕산지구와 용산지구가 위치한 용봉읍의 사회기반시설은 신생마을에 비해 사회기반시설 부족

○ 종합평가

- 입지평가 기준을 적용한 입지 우선순위를 보면 신생마을(용정동)이 접근성, 훈련시설 활용성, 생활 편의성 등에서 상대적 입지 우위를 가져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용산지구가 뒤를 이었으며, 덕산지구의 적합도가 후 순위인 것으로 나타남

[표 5-1] 조성 대상 후보지 입지평가 종합

구분		덕산지구	용산지구	신생마을(용정동)
접근성	남원IC	11.2km	13.0km	1.3km
	서남원IC	17.0km	20.2km	8.5km
	남원역(KTX)	14.1km	16.5km	2.6km
	남원공용버스터미널	11.7km	14.2km	2.0km
	평균 거리	13.5km	16.0km	3.6km
	입지 우위도	2	1	3
경제성	공시지가(원/m ²)	13,900	3,760	19,900
	입지 우위도	2	3	1
추진 용이성	국공유지 비율	43.8%	100%	78.2%
	입지 우위도	1	3	2
훈련시설 활용성	춘향골체육공원	10.4km	12.2km	1.9km
	입지 우위도	2	1	3
생활 편의성	사회기반시설	읍 단위 지역으로 사회기반시설 열위	읍 단위 지역으로 사회기반시설 열위	인근에 여러 법정동이 위치하여 사회기반시설 인프라 확보
	입지 우위도	2	2	3
입지 우위도 합계		9	10	12

주 : 입지 우위가 '높음' 3, '중간' 2, '낮음' 1

접근성과 훈련시설 활용성 검토를 위한 거리는 해당 위치와 후보지 간 직선거리임

2. 종목선정 및 단계별 건립 규모

가. 종목선정

■ 종목선정 기준

- 기존 국가대표선수촌 훈련시설 부재 종목 우선 선정
 - 기존 국가대표선수 훈련체계에 혼돈을 가하지 않으면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훈련 시설 조성을 위해 기존 국가대표선수촌 내 훈련시설이 없는 종목선정
 -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신설 종목을 고려하여 단계별 건립 규모에 따라 수용 종목선정
- 전북과 남원이 경쟁우위에 있는 종목 수용
 - 전북과 남원이 경쟁우위를 가지는 종목을 수용하여 지역거점 국가대표선수촌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시즌 기간의 활용도 제고
 - 전북의 선수층이 두터운 종목과 남원의 국제규격을 갖춘 경기장 혹은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한 경기장, 근거리에 위치한 지역의 종목단체 시설공인을 받은 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 종목
- 시설공유가 가능한 종목 수용
 - 건립 비용의 절감과 이용 수요 제고를 위해 동일 공간에 훈련시설을 배치할 수 있는 종목을 최대한 수용

■ 단계별 종목선정

- 1단계 :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 훈련시설 부재 종목 : BMX
 - 경쟁우위 종목 : 배구, 농구, 스포츠클라이밍, 인라인스피드, 테니스, 양궁
 - 시설공유 종목 : 핸드볼, 배드민턴
- 2단계 : 지역거점 국가대표선수촌 기능 강화
 - 수용 종목과 부대 지원시설의 설치에 투자되는 사업비를 고려하여 2-1단계, 2-2단계로 나누어 조성

- 2-1단계 ▲훈련시설 부재 종목(스케이트보드, 주짓수) ▲경쟁우위 종목(레슬링) ▲시설공유 종목(태권도, 유도, 복싱, 펜싱, 가라테)
- 2-2단계 : 훈련시설 부재 종목(e스포츠, 브리지, 체스, 축구)

나. 단계별 건립 규모

■ 1단계 :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2026
- 시설규모 : 부지면적 58,337m², 연면적 13,477m²
- 사업비 : 49,016백만 원

○ 시설 및 종목

- 볼 스포츠센터 : 배구, 농구, 핸드볼, 배드민턴, 체력단련실
- BMX 트랙
- 인근 훈련시설 활용 종목 : 테니스(남원 육면테니스장), 스포츠클라이밍(남원 스포츠클라이밍장), 인라인스피드(남원 인라인롤러경기장), 양궁(전라북도 국제양궁장)
- 커뮤니티 센터 : 행정실, 스포츠 헬스케어 센터, 인권센터, 학습 지원센터 등
- 선수 숙소 A동 : 60실 기준 120명 수용



출처 : 출라비스타 올림픽 트레이닝 센터 홈페이지(<https://trainatchulavista.com>).

[그림 5-4] 출라비스타 올림픽 트레이닝 센터 BMX 트랙

[표 5-2] 1단계 건립 규모 및 시설

구분	시설명	공사규모	면적(m ²)		사업비(백만 원)		
			부지	연	공사	토지	합계
훈련시설	BMX 트랙	-	13,145	2,540	10,271	262	10,533
	볼 스포츠센터	2층	12,688	3,206	12,964	253	13,217
부대 지원시설	커뮤니티 센터	지하 1층 지상 3층	17,480	4,216	12,502	348	12,850
	선수 숙소	지하 1층 지상 4층	15,024	3,515	12,117	299	12,416
합계			58,337	13,477	47,854	1,162	49,016

주 : 훈련시설의 단위면적당 공사비(원/m²)는 조달청 유형별공사비 중 2022년 발주한 복합형 체육시설 단위 면적당 공사비의 평균 금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
 커뮤니티 센터의 단위면적당 공사비는 2022년 발주한 공공청사 단위면적당 공사비의 평균 금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
 선수 숙소의 단위면적당 공사비는 2021년 발주한 리조트호텔의 단위면적당 공사비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

■ 2-1단계 : 지역거점 국가대표선수촌 기능 강화 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2028
- 시설규모 : 부지면적 60,149m², 연면적 13,556m²
- 사 업 비 : 49,047백만 원

○ 시설 및 종목

- 컴뱃 스포츠센터 : 레슬링, 태권도, 유도, 복싱, 펜싱, 가라테, 주짓수
- 스케이트보드장
- 스포츠 잡센터 : 체험관, 진로설계관, 강당, 극장, 워크숍 공간 등
- 오픈 플레이센터 : 영화관, 게임룸, 공연장, 감성카페, 셀프사진관 등
- 선수 숙소 B동: 60실 기준 120명 수용

[표 5-3] 2-1단계 건립 규모 및 시설

구분	시설명	공사규모	면적(m ²)		사업비(백만 원)		
			부지	연	공사	토지	합계
훈련시설	컴뱃 스포츠센터	2층	10,527	2,854	11,541	210	11,751
	스케이트보드 훈련장	-	13,726	2,672	10,805	273	11,078
부대 지원시설	스포츠 잡센터	지하 1층 지상 2층	11,634	2,253	6,680	231	6,911
	오픈 플레이센터	지상 2층	9,238	2,262	6,707	184	6,891
	선수 숙소	지하 1층 지상 4층	15,024	3,515	12,117	299	12,416
합계			60,149	13,556	47,850	1,197	49,047

주 : 훈련시설의 단위면적당 공사비(원/m²)는 조달청 유형별공사비 중 2022년 발주한 복합형 체육시설 단위 면적당 공사비의 평균 금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
스포츠 잡센터와 오픈 플레이센터의 단위면적당 공사비는 조달청 유형별공사비 중 2021년, 2022년 발주한 공공청사 단위면적당 공사비의 평균 금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
선수 숙소의 단위면적당 공사비는 조달청 유형별공사비 중 2021년 발주한 리조트호텔의 단위면적당 공사비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



출처 : 호주스포츠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ais.gov.au/combata-centre>).

[그림 5-5] AIS 컴뱃 센터



출처 : 국제롤러경기연맹 홈페이지(<https://www.worldskate.org>).

[그림 5-6] 샤르자 스케이트파크

■ 2-2단계 : 지역거점 국가대표선수촌 기능 강화 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8~2030
- 시설규모 : 부지면적 61,776m², 연면적 22,065m²
- 사 업 비 : 49,019백만 원

○ 시설 및 종목

- 마인드 스포츠센터 : e스포츠, 브리지, 체스
- 축구장
- 선수 숙소 C동 : 60실 기준 120명 수용

[표 5-4] 2-2단계 건립 규모 및 시설

구분	시설명	공사규모	면적(m ²)		사업비(백만 원)		
			부지	연	공사	토지	합계
훈련시설	마인드 스포츠센터	2층	11,459	2,550	10,311	228	10,539
	축구 훈련장	-	35,293	16,000	25,362	702	26,064
부대 지원시설	선수 숙소 C동	지하 1층 지상 4층	15,024	3,515	12,117	299	12,416
합계			61,776	22,065	47,790	1,229	49,019

주 : 마인드 스포츠센터의 단위면적당 공사비(원/m²)는 조달청 유형별공사비 중 2022년 발주한 복합형 체육 시설 단위면적당 공사비의 평균 금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
선수 숙소의 단위면적당 공사비는 조달청 유형별공사비 중 2021년 발주한 리조트호텔의 단위면적당 공사비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



출처 : 크리브 코어 파크 축구장 홈페이지(<https://www.ccparksoccer.com>).

[그림 5-7] 크리브 코어 파크 축구장

■ 3단계 : 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30~2032
- 시설규모 : 부지면적 68,582m², 연면적 13,937m²
- 사 업 비 : 49,091백만 원

○ 연구시설

- 스포츠기업 R&D센터 : 연구동, 실험동, 국제회의실, 대강당, 세미나실 등
- 스포츠의과학센터 : 스포츠영양학실, 스포츠생리학실, 생체역학실, 스포츠심리학실, 실험실 등

[표 5-5] 3단계 건립 규모 및 시설

구분	시설명	공사규모	면적(m ²)		사업비(백만 원)		
			부지	연	공사	토지	합계
연구시설	스포츠기업R&D지원센터	지하 1층 지상 4층	39,176	7,362	25,154	780	25,934
	스포츠의과학센터	지하 1층 지상 3층	14,382	3,060	10,455	286	10,741
부대 지원시설	선수 숙소 D동	지하 1층 지상 4층	15,024	3,515	12,117	299	12,416
합계			68,582	13,937	47,726	1,365	49,091

주 : 연구시설의 단위면적당 공사비(원/m²)는 조달청 유형별공사비 중 2022년 발주한 실험용연구시설 단위면적당 공사비의 평균 금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
선수 숙소의 단위면적당 공사비는 조달청 유형별공사비 중 2021년 발주한 리조트호텔의 단위면적당 공사비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



자료 : Perkins&Will 홈페이지(<https://perkinswill.com>).

[그림 5-8] BSWH 스포츠 치료·연구센터

■ 단계별 건립 규모 및 시설 종합

- 3단계 건립에 투자되는 총사업비는 약 1,962억 원임

[표 5-6] 단계별 건립 규모 및 시설 종합

구분	시설명	공사규모	면적(m ²)		사업비(백만 원)		
			부지	연	공사	토지	합계
1단계 :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24~'26)			58,337	13,477	47,854	1,162	49,016
훈련시설	BMX 트랙	-	13,145	2,540	10,271	262	10,533
	볼 스포츠센터	2층	12,688	3,206	12,964	253	13,217
부대 지원시설	커뮤니티 센터	지하 1층 지상 3층	17,480	4,216	12,502	348	12,850
	선수 숙소	지하 1층 지상 4층	15,024	3,515	12,117	299	12,416
2단계 : 지역거점 국가대표선수촌 기능 강화('26~'30))			121,925	35,621	95,640	2,426	98,066
2-1단계('26~'28)			60,149	13,556	47,850	1,197	49,047
훈련시설	캠뱃 스포츠센터	2층	10,527	2,854	11,541	210	11,751
	스케이트보드 훈련장	-	13,726	2,672	10,805	273	11,078
부대 지원시설	스포츠 잡센터	지하 1층 지상 2층	11,634	2,253	6,680	231	6,911
	오픈 플레이센터	지상 2층	9,238	2,262	6,707	184	6,891
	선수 숙소	지하 1층 지상 4층	15,024	3,515	12,117	299	12,416
2-2단계('28~'30)			61,776	22,065	47,790	1,229	49,019
훈련시설	마인드 스포츠센터	2층	11,459	2,550	10,311	228	10,539
	축구 훈련장	-	35,293	16,000	25,362	702	26,064
부대 지원시설	선수 숙소 C동	지하 1층 지상 4층	15,024	3,515	12,117	299	12,416
3단계 : 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30~'32)			68,582	13,937	47,726	1,365	49,091
연구시설	스포츠기업R&D지원 센터	지하 1층 지상 4층	39,176	7,362	25,154	780	25,934
	스포츠의과학센터	지하 1층 지상 3층	14,382	3,060	10,455	286	10,741
부대 지원시설	선수 숙소 D동	지하 1층 지상 4층	15,024	3,515	12,117	299	12,416
합계			248,844	63,035	191,220	4,953	196,173

3. 운영방안

가. 이용 수요 추정

■ 1단계 :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 1단계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를 이용하는 우수선수 육성 4단계 선수의 연인원은 42,876명으로 추정됨
 - COVID19-팬데믹 이전인 2019년 꿈나무선수 육성 대상 인원은 22종목 976명으로 종목당 평균인원은 44명, 합숙훈련은 동하게 2회 실시하고, 1회당 훈련기간은 13일로 1단계 수용종목인 9개 종목의 연인원은 10,296명임
 - 청소년대표 육성 대상 인원은 29종목 1,066명으로 종목당 평균인원은 37명, 합숙훈련은 동하게 기간 중 종목별로 1회(20일) 실시하여 9개 종목의 연인원은 6,660명임
 - 국가대표 후보선수 육성 대상 인원은 29종목 1,471명으로 종목당 평균인원은 51명, 합숙훈련은 20일씩 연 2회 실시하나, 지역거점 국가대표선수촌의 이용 수요를 50%로 추정하여 연인원은 9,180명임
 - 국가대표선수 육성 대상 인원은 하계 올림픽종목 32개 종목과 하계 아시안게임 8개 종목에서 1,239명으로 종목당 평균인원은 31명이며, 이용 수요를 25%로 추정하여 연인원은 16,740명임
 - 연인원 42,876명을 360일로 나눌 경우 일일 이용인원은 119명으로 선수 숙소의 활용률은 99.3%임
- 시설설치 종목 5개 종목을 대상으로 연 4회의 전국 및 지역대회를 개최할 경우, 경기대회를 통한 연인원 증가는 1만 6천 명으로 예상되어, 총 연인원은 58,876명임

[표 5-7] 1단계 이용 수요 추정

구분	종목수 (a)	선수지도자 수 (b)	이용횟수 (c)	이용일 (d)	연인원 (a×b×c×d)
꿈나무선수	9	44명	2회	13일	10,296명
청소년대표선수	9	37명	1회	20일	6,660명
국가대표 후보선수	9	51명	1회	20일	9,180명
국가대표선수	9	31명	3회	20일	16,740명
경기대회	5	400명	4회	2일	16,000명
계					58,876명

■ 2단계 : 지역거점 국가대표선수촌의 기능 강화

- (2-1단계) 지역거점 국가대표선수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수용 종목을 확대하는 2-1단계에서는 8개 종목이 추가 수용됨에 따라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을 이용하는 우수선수 육성 4단계 선수의 연인원은 80,988명으로 추정됨
 - 1단계 이용 수요 추정과 같이 종목당 평균인원, 합숙훈련 횟수, 1회당 훈련기간, 국가대표 후보선수와 국가대표선수 이용비율 등을 산정하고, 2-1단계의 총 수용종목인 17개 종목에 대한 연인원을 추정
 - 각 우수선수 육성 단계별 연인원은 꿈나무선수 19,448명, 청소년대표선수 12,580명, 국가대표 후보선수 17,340명, 국가대표선수 31,620명으로 총 80,988명임
 - 일일 이용인원은 225명으로 선수 숙소 수용 규모인 240명에 근접하여 활용률은 93.8%임
- 훈련시설이 설치된 13개 종목을 대상으로 전국대회 및 지역대회를 연 4회 개최하면, 경기대회를 통한 연인원의 증가는 41,600명으로 총 연인원은 122,588명으로 예상됨
 - 17개 종목 중 인근 훈련시설을 활용하는 종목인 테니스, 스포츠클라이밍, 인라인 등 4개 종목을 제외하고, 훈련시설이 설치된 종목인 BMX, 스케이트보드, 레슬링, 유도, 복싱, 농구, 배구 등 13개 종목에 대해 연 4회의 대회를 개최하여 종목당 평균 참가인원 400명, 대회기간 2일을 적용할 경우 대회개최를 통한 연인원은 41,600명으로 추정됨
 - 여기에 우수선수 육성 4단계 선수의 연 이용인원 80,988명과 경기대회를 통한 연인원 41,600명을 더하면 총 연인원은 122,588명임

[표 5-8] 2-1단계 이용 수요 추정

구분	종목수 (a)	선수지도자 수 (b)	이용횟수 (c)	이용일 (d)	연인원 (a×b×c×d)
꿈나무선수	17	44명	2회	13일	19,448명
청소년대표선수	17	37명	1회	20일	12,580명
국가대표 후보선수	17	51명	1회	20일	17,340명
국가대표선수	17	31명	3회	20일	31,620명
경기대회	13	400명	4회	2일	41,600명
계					122,588명

- (2-2단계) 축구장과 마인드 스포츠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4개 종목이 추가되어 전복스포츠종합훈련원을 이용할 우수선수 육성 4단계 선수의 연인원은 100,044명으로 추정됨
- 이 단계에서는 학교운동부 선수의 교외 합숙훈련 장소로 제공됨에 따라 25,857명의 연인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됨
 - 선수 숙소의 수용 규모는 1단계 120명, 2-1단계 240명, 2-2단계 360명으로 일부 학교운동부 선수를 수용할 수 있어 시설활용도 제고를 위해 학교운동부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지훈련 장소로 제공할 수 있음
 - 2019년 기준 초중고 학교운동부는 7,341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선수는 59,146명, 전임 및 일반 코치는 5,761명으로 운동부당 평균인원은 9명임
 - 이에 따라 13세이하부와 16세이하부에서 각각 종목당 4팀, 19세이하부에서 종목당 5팀을 수용하고, 평균적인 합숙 훈련기간인 2주를 적용하면, 연인원은 17개 종목에서 25,857명으로 예상됨
 - 우수선수와 학생선수를 합한 선수의 총 연인원은 125,901명, 일일 이용인원은 350명으로 추산되어 선수 숙소의 활용률은 97.2%임
- 17개 종목 경기대회를 통한 연인원 54,400으로 총 연인원은 180,301명으로 추정됨

[표 5-9] 2-2단계 이용 수요 추정

구분	종목수 (a)	선수지도자 수 (b)	이용횟수 (c)	이용일 (d)	연인원 (a×b×c×d)
우수선수 육성 4단계					100,044명
꿈나무선수	21	44명	2회	13일	24,024명
청소년대표선수	21	37명	1회	20일	15,540명
국가대표 후보선수	21	51명	1회	20일	21,420명
국가대표선수	21	31명	3회	20일	39,060명
학교운동부					25,857명
13세이하부	17	36명	1회	13일	7,956명
16세이하부	17	36명	1회	13일	7,956명
19세이하부	17	45명	1회	13일	9,945명
경기대회	17	400명	4회	2일	54,400명
계					180,301명

■ 3단계 : 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

- 3단계에서는 추가 수용종목이 없으므로 우수선수 육성 4단계 선수의 연 이용인원은 100,044명으로 2-2단계와 동일함
- 그러나 선수 숙소 수용규모가 48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학교운동부 선수의 수용을 확대하면, 학교운동부 선수의 연 이용인원은 66,963명으로 전 단계에 비해 41,106명이 증가함
 - 13세이하부에서 종목당 7팀, 16세이하부와 19세이하부에서 각각 종목당 10팀, 대학부에서 종목당 7팀을 수용하면 연 이용인원은 17개 종목 67,626명임
 - 우수선수와 학생선수를 합한 연인원은 167,670명, 일일 이용인원은 466명으로 선수 숙소 활용률은 97.1%임
- 경기대회를 통한 연인원의 증가는 54,400명으로 우수선수 및 학생선수, 경기대회 참가자를 합한 총 연인원은 222,070명으로 추정됨

[표 5-10] 3단계 이용 수요 추정

구분	종목수 (a)	선수지도자 수 (b)	이용횟수 (c)	이용일 (d)	연인원 (a×b×c×d)
우수선수 육성 4단계					100,044명
꿈나무선수	21	44명	2회	13일	24,024명
청소년대표선수	21	37명	1회	20일	15,540명
국가대표 후보선수	21	51명	1회	20일	21,420명
국가대표선수	21	31명	3회	20일	39,060명
학교운동부					67,626명
13세이하	17	63명	1회	13일	13,923명
16세이하	17	90명	1회	13일	19,890명
19세이하	17	90명	1회	13일	19,890명
대학부	17	63명	1회	13일	13,923명
경기대회	17	400명	4회	2일	54,400명
계					222,070명

나. 경제적 타당성 분석

■ 분석 방법

○ 비용편익비율(Benefit-Cost Ratio, B/C)

- B/C는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편익의 현재가치와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비용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고, 비용에 대한 편익의 비율을 산정하는 것으로 그 비율이 1 이상인 경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산정 방법 : $B/C = \text{편익 현재가치} / \text{비용 현재가치}$

여기서 'B/C > 1'이면 타당성 있음

○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e, NPV)

-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순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순현재가치가 0 이상인 경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산정 방법 : $NPV = \sum_{i=0}^n \frac{R_i}{(1+r)^i} - \sum_{i=0}^n \frac{C_i}{(1+r)^i}$

여기서, $R_i = i$ 년도 수입

$C_i = i$ 년도 비용

$r = \text{할인율}$

'NPV > 0'이면 타당성 있음

○ 내부수익률법(Internal Ratio of Return, IRR)

- 사업 기간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계산하고, 이 할인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클 경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산정 방법 : $\sum_{i=0}^n \frac{R_i}{(1+r)^i} = \sum_{i=0}^n \frac{C_i}{(1+r)^i}$

여기서 'IRR > 사회적 할인율'이면 타당성 있음

■ 비용 산정

-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사업은 9년간 3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총사업비로 약 1,962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추산됨

- 1단계 :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사업(2024~2026년)
- 2단계 : 지역거점 국가대표선수촌 기능 강화 사업(2026~2030년), 2-1단계(2026~2028년), 2-2단계(2028~ 2030년)로 나누어 추진
- 3단계 : 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2030~2032년)

[표 5-11]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계
토지	1,162		1,197		1,229		1,365			4,953
공사	4,633	22,869	24,985	22,867	24,977	22,838	24,945	22,808	20,298	191,220
계	5,795	22,869	26,182	22,867	26,206	22,838	26,310	22,808	20,298	196,173

- 인건비는 1단계 7억 5,392만 원, 2-1단계 11억 9,740만 원, 2-2단계 14억 1,914만 원, 3단계 16억 4,088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됨
- 2022년도 대한체육회의 일반정규직은 201.08명, 1인당 평균 기본급은 5천 33만 원이었고, 무기계약직은 43.67명, 1인당 평균 기본급은 3천 357만 원으로, 이를 가중평균하면 1인당 평균 인건비는 4천 435만 원이 산정됨
-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 근무하는 인원은 선수촌장실 2명, 부촌장실 1명, 훈련본부 7명, 훈련기획부 10명, 훈련지원부 5명, 의과학부 25명, 선수촌운영부 22명, 선수식당 9명 등 총 81명임
-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의 시설은 실내 훈련시설 12개소, 옥외 훈련시설 10개소, 부대 지원시설 11개소로 총 33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1개소당 근무 인원은 2.46명임
- 이에 따라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의 1단계 시설은 7개소로 17명, 2-1단계 11개소 27명, 2-2단계 13개소 32명, 3단계는 15개소로 37명의 직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표 5-12] 인건비

(단위 : 명, 개, 천원)

사업단계	시설당 인원	시설 수	총인원	1인당 평균 인건비	총인건비
1단계	2.46	7	17	44,348	753,916
2-1단계	2.46	11	27	44,348	1,197,396
2-2단계	2.46	13	32	44,348	1,419,136
3단계	2.46	15	37	44,348	1,640,876

- 시설운영비는 1단계 7억 3,284만 원, 2-1단계 14억 6,997만 원, 2-2단계 26억 6,980만 원, 3단계에는 34억 2,762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 부산광역시(2018)에 따르면 연면적 190,118m² 규모의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시설운영비는 총 93억 7,200만 원, 이를 제곱미터(m²)당 시설운영비로 환산하면 49.3천 원이 산정됨
 - 여기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제곱미터(m²)당 실질 시설운영비는 54.4천 원임

[표 5-13] 시설운영비

사업단계	연면적(m ²)	단위면적당 운영비 (천원/m ²)	총운영비(천원)
1단계	13,477	54.4	732,838
2-1단계	27,033	54.4	1,469,972
2-2단계	49,098	54.4	2,669,800
3단계	63,035	54.4	3,427,621

주 : 단위 면적당 운영비는 2017년 기준 49,296원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임

- 비용과 편익 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물가상승률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10년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인 1.62%이고, 인건비 상승률은 최근 3년간 대한체육회 인건비 상승률인 1.21%를 반영

[표 5-14] 소비자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

(단위 : %, 천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상승률
물가지수	93.01	94.20	94.86	95.78	97.65	99.09	99.47	100.00	102.50	107.71	
물가상승률	1.30	1.28	0.71	0.97	1.94	1.48	0.38	0.54	2.50	5.08	1.62
인건비							42,789	42,724	43,787	44,348	
인건비상승률								-0.18	2.51	1.28	1.21

자료 : 통계청 KOSIS(<https://kosis.kr>); 대한체육회 홈페이지(<https://www.sports.or.kr>).

■ 편익 산정

- 우수선수 육성 4단계 선수의 합숙훈련 지원 단가는 국가대표선수 10만 4천 원, 후보선수 7만 6천 원, 청소년대표 및 꿈나무 선수는 6만 7천 원임
 - 국가대표선수의 총외 훈련 숙박비는 2022년까지 4만 원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6만 원으로 2만 원 인상이었음(문화체육관광부, 2022. 12. 28)
 - 청소년대표선수와 꿈나무선수의 합숙훈련 단가가 동일하고, 후보선수의 숙박비가 1만 원이 더 많은 4만 원으로 조사됨

[표 5-15] 대한체육회 우수선수 합숙훈련 지원 세부단가

(단위 : 원)

내역	꿈나무선수	청소년대표	후보선수	국가대표
숙박비	30,000	30,000	40,000	60,000
식비(간식비)	30,000	30,000	30,000	44,000
목욕비	7,000	7,000	6,000	
합계	67,000	67,000	76,000	104,000

자료 : 대한체육회(2019) 2018 사업결과 보고서; 대한체육회(2021) 각종 정보·통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2). 재구성.

- 합숙훈련 유치로 인한 수입은 1단계 35억 4,715만 원, 2-1단계 67억 18만 원, 2-2단계 109억 6,582만 원, 3단계 153억 979만 원으로 추산됨
- 1단계의 이용 수요는 꿈나무선수 10,296명, 청소년대표선수 6,660명, 후보선수 9,180명, 국가대표선수 16,740명으로 우수선수 합숙훈련 지원 단가를 각각 적용하면 합숙훈련으로 인한 연 수입은 35억 4,715만 원임
- 2-1단계에서는 육성 단계별 이용 수요가 각각 9,152명, 5,920명, 8,160명, 14,880명이 증가한 19,448명(꿈나무선수), 12,580명(청소년대표), 17,340명(후보선수), 31,620명(국가대표)으로 합숙훈련 유치에 따른 연 수입은 67억 18만 원임
- 2-2단계에서는 육성 단계별 이용 수요가 각각 4,576명(꿈나무선수), 2,960명(청소년대표), 4,080명(후보선수), 7,440명(국가대표)이 증가하고, 학교운동부의 합숙훈련 유치가 가능함에 따라 13세이하부 7,956명, 16세이하부 7,956명 19세이하부 9,945명이 추가되며, 학교운동부에 대해서 실제 이용 비용인 10만 4천 원을 적용하면 이 단계에서의 연 수입은 109억 6,582만 원이 산정됨
- 3단계에서는 종별 학교운동부 이용 수요가 13세이하부 5,967명, 16세이하부 11,934명, 19세이하부 9,945명이 증가하고, 대학부 13,923명이 추가됨에 따라 이 단계에서의 연 수입은 153억 979만 원임

[표 5-16] 합숙훈련 유치 수입

(단위 : 천원)

구분		1단계	2-1단계	2-2단계	3단계
우수선수 육성 4단계	꿈나무선수	689,832	1,303,016	1,609,608	1,609,608
	청소년대표	446,220	842,860	1,041,180	1,041,180
	후보선수	670,140	1,265,820	1,563,660	1,563,660
	국가대표	1,740,960	3,288,480	4,062,240	4,062,240
학교운동부	13세이하부			827,424	1,447,992
	16세이하부			827,424	2,068,560
	19세이하부			1,034,280	2,068,560
	대학부				1,447,992
합계		3,547,152	6,700,176	10,965,816	15,309,792

- 유사기관의 대관료를 고려하여 1일 대관료 20만 원을 적용하면, 경기대회 유치에 따른 연 대관수입은 1단계, 800만 원, 2-1단계 2,080만 원, 2-2단계 및 3단계 2,720만 원으로 추산됨

[표 5-17] 대관수입

(단위 : 천원)

구분	1단계	2-1단계	2-2단계	3단계
대관일수(a)	40일	104일	136일	136일
일일 대관료(b)	200	200	200	200
대관수입(a×b)	8,000	20,800	27,200	27,200

- 3단계에서는 스포츠기업 R&D지원센터가 건립되어 국제회실, 대강당, 세미나실 등을 제외한 연구동과 실험동의 임대로 인해 연 4억 3,145만 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표 5-18] 임대수입

구분	단위면적당 월임대료 (원/m ²)	임대면적(m ²)	연임대료(천원)
스포츠기업 R&D지원센터	6,977	5,153.4	431,447

■ 경제적 타당성 분석

○ 분석기준

-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사용된 사회적 할인율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기준(2017년) 및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사회적 할인율(2019년)인 4.5%를 적용
- 물가상승률은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인 1.62%를 적용하고, 인건비 상승률은 최근 3년간의 대한체육회 연평균 인건비 상승률인 1.21%를 적용
- 분석 기간은 사업 시행 연도인 2024년부터, 2-1단계 사업이 완성되는 해로부터 30년이 되는 2057년까지로 설정

- 분석 결과, 국립 전복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사업의 총비용은 4,119억 원, 총편익은 6,344억 원으로 추정되어 총비용의 현재가치는 2,535억 원, 총편익의 현재가치는 2,644억 원으로 나타남
- 비용편익비율(B/C)이 1.043으로 1보다 크게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순현재가치(NPV)가 109억으로 0보다 크기 때문에 타당성 확보되었다 할 수 있음
- 내부수익률(IRR)은 5.0%로 사회적 할인율인 4.5%보다 크게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표 5-19] 경제적 타당성 분석 종합

구분		분석 결과	타당성
비용	총비용	4,119억 원	
	총비용 현재가치	2,535억 원	
편익	총편익	6,344억 원	
	총편익 현재가치	2,644억 원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방법	비용편익비율(B/C)	1.043	'B/C > 1'이므로 타당성 확보
	순현재가치법(NPV)	109억 원	'NPV > 0'이므로 타당성 확보
	내부수익률법(IRR)	5.0%	'IRR > 4.5%'이므로 타당성 확보

[표 5-20] 경제적 타당성 분석표

(단위 : 백만 원)

연도	비용(지출)	편익(수입)	할인계수(4.5%)	비용 현재가치	편익 현재가치	순현재가치
2023년			1.0000			
2024년	5,889		1.0450	5,635		-5,635
2025년	23,615		1.0920	21,625		-21,625
2026년	28,253	1,910	1.1412	24,758	1,674	-23,084
2027년	25,965	3,882	1.1925	21,773	3,255	-18,518
2028년	30,637	5,701	1.2462	24,585	4,575	-20,010
2029년	28,067	7,578	1.3023	21,553	5,819	-15,733
2030년	33,194	10,136	1.3609	24,392	7,449	-16,943
2031년	30,549	12,775	1.4221	21,481	8,983	-12,498
2032년	28,699	16,039	1.4861	19,312	10,793	-8,519
2033년	5,896	18,890	1.5530	3,797	12,163	8,367
2034년	5,984	19,195	1.6229	3,687	11,828	8,141
2035년	6,073	19,506	1.6959	3,581	11,502	7,921
2036년	6,163	19,821	1.7722	3,478	11,185	7,707
2037년	6,255	20,142	1.8519	3,378	10,876	7,498
2038년	6,348	20,468	1.9353	3,280	10,576	7,296
2039년	6,443	20,799	2.0224	3,186	10,284	7,099
2040년	6,539	21,135	2.1134	3,094	10,001	6,907
2041년	6,636	21,477	2.2085	3,005	9,725	6,720
2042년	6,735	21,825	2.3079	2,918	9,457	6,538
2043년	6,835	22,178	2.4117	2,834	9,196	6,362
2044년	6,937	22,537	2.5202	2,753	8,942	6,190
2045년	7,040	22,901	2.6337	2,673	8,696	6,022
2046년	7,145	23,272	2.7522	2,596	8,456	5,859
2047년	7,252	23,648	2.8760	2,522	8,223	5,701
2048년	7,360	24,031	3.0054	2,449	7,996	5,547
2049년	7,470	24,419	3.1407	2,378	7,775	5,397
2050년	7,582	24,814	3.2820	2,310	7,561	5,251
2051년	7,695	25,216	3.4297	2,244	7,352	5,109
2052년	7,810	25,624	3.5840	2,179	7,149	4,970
2053년	7,926	26,038	3.7453	2,116	6,952	4,836
2054년	8,045	26,460	3.9139	2,055	6,760	4,705
2055년	8,165	26,888	4.0900	1,996	6,574	4,578
2056년	8,287	27,323	4.2740	1,939	6,393	4,454
2057년	8,411	27,765	4.4664	1,883	6,216	4,333
합계	411,901	634,391		253,446	264,385	10,940

주 : 지난 10년간 연평균 물가상승률 1.62%와 대한체육회 연평균 인건비 상승률 1.21%를 반영한 금액임

참 고 문 헌

REFERENCE

- 국제롤러경기연맹 홈페이지. (<https://www.worldskate.org>).
- 국제올림픽위원회 홈페이지. (<https://olympics.com>).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https://data.kma.go.kr/cmmn/main.do>).
- 김상훈, 정지명, 김민수, 고경진 & 장은영. (2018). 스포츠 산업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김양례, 김미숙, 정현우, 송홍선, 김영숙, 강재원, 박은영, 김민현, 이경민 & 이우영. (2019). 국가 대표선수촌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남원시 민선7기 시정백서(2018~2022). (2022). 남원시청.
- 남원시체육회 홈페이지. (<http://www.nwssports.kr/m51.php>).
- 대한민국정부. (2022).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 대한체육회. (2020). 2019 사업결과보고서.
- 대한체육회. (2021). 2020 사업결과보고서.
- 대한체육회. (2022). 2021 사업결과보고서.
-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https://www.sports.or.kr>).
- 디지털남원문화대전 홈페이지. (<http://namwon.grandculture.net>).
- 문화체육관광부. (2018). 체육분야 중장기 문화비전 수립 연구: 2030스포츠비전.
- 문화체육관광부. (2020) 국민생활체육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21). 스포츠산업조사 결과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0 스포츠산업백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0 체육백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2 성과관리 시행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2 스포츠기반 구축 사업 운영평가 및 만족도조사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
- 부산광역시. (2018). 부산 종합훈련 선수촌 건립타당성 및 기본계획.
-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홈페이지. (<https://ocasias.org>).

올림픽 지배한 한국의 활, 일본의 공, 중국의 매트(이종성의 스포츠 문화&산업). (2021.08.10).
 [스타뉴스] www.starnewskorea.com/stview.php?no=2021080915125857422

전라북도. (2022).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2021~2040).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777>

전북도청 홈페이지. (<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

정지명, 유의동, 고경진, 신성연 & 박보연. (2021). 2020 한국의 체육지표. 한국스포츠정책 과학원.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http://pcae.g2b.go.kr>).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 (2019). 현대경제연구원.

크리브 코어 파크 축구장 홈페이지. (<https://www.ccparksoccer.com>).

태백선수촌 다목적체육관 건립 확충 본격 추진. (2021.02.18).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2181433599178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통계청 KOSIS. (<https://kosis.k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s://jumin.mois.go.k>).

호주스포츠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ais.gov.au>).

2023년 ‘모두를 위한 스포츠’ 예산 1조 6,398억 원으로 확정. (2022.12.28).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9938

2023년 스포츠산업 지원 사업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2022.12.04).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9889

Perkins&Will 홈페이지. (<https://perkinswill.com>).

SUMMARY

A Study on the Need for a National Training Center in Jeonbuk and its Construction and Operational Plans

Euncheon Jeong · Yoon-Kyu Choi, Jihoon Choi

1. Study Objectives and Methods

■ Research objectives

-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need and justification for constructing a national training center in Jeonbuk and to suggest plans that distinguish it from existing national training centers.
- Specifically, this study 1) analyzes the events of the Olympics and the Asian Games and the central government's sports policies to present the need to construct a national training center; 2) justifies the construction of a Jeonbuk national training center by analyzing the general and sports-related environments of Jeonbuk and Namwon and deriving the region's competitive edge; and 3) proposes stage-specific construction plans to distinguish it from existing national training centers by examining programs for promising young athletes, national training centers' facilities and operations, and sponsorships in the sports industry.

■ Research methods

- We employed literature research and expert consultation to review the need to create a regional flagship training center for national athletes and a sports industry cluster, focusing on designing systematic programs to cultivate promising young athletes, building comprehensive training facilities for youth players, and

diversifying sports facilities.

- Through a business feasibility study, we leveraged the statistical data of Jeonbuk's and Namwon's natural, human, and sports environments and potential project sites, and conducted relevant analyses to derive a competitive edge for a Jeonbuk national training center. For the analysis of the sports environment, we carried out a literature review and an on-site inspection simultaneously.
- For situational analyses, we identified problems by delving into the way youth athletes are currently cultivated. To present room for improvement, we conducted comparative analyses based on the facilities' data and national training centers' operational status at home and abroad. Furthermore,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expert consultation sessions, we reviewed the possibility of embracing the events added to the Olympics and the Asian Games.

2.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

■ Research results

- Jeonbuk is the center of the southern part of the nation's central region, bordering Chungbuk, Chungnam, Gyeongbuk, Gyeongnam, and Jeonnam. In addition, Namwon is an important transportation hub that connects all major regions of the nation, serving as an optimal location for a proposed regional flagship national training center.
- Jeonbuk has the fourth largest number of athletes nationwide and Namwon has hosted a series of international and national sports events and has subsequently developed outstanding sports infrastructure. Namwon's local government is also ready to provide support for the region's sports development. In summary, the region has tremendous growth potential with its well-established infrastructure and could set a good example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creation of a sports industry cluster.

- Our analytical findings reveal the need to develop new and innovative systems for young athletes and secure alternatives to events when facilities are unavailable in existing national training centers. Moreover, fostering the sports industry centered on sports products to overcome regional limitations is needed as there is a disproportional weight in favor of sports services.

■ Policy Suggestion

- Among the potential project sites of Yongsan, Deoksan and Shinsaeng, we recommend that Shinsaeng be the top priority in terms of accessibility, utilization of training facilities, and life convenience.
- We propose a step-by-step project to allow for limited public resources and minimize the problems that may arise from building everything simultaneously. As a first step, a sports complex for youth athletes needs to be constructed to accommodate events that existing national training centers cannot afford as well as events in which Jeonbuk and Namwon have competitive advantages. As supporting facilities, we propose installing a learning support center, a human rights protection center, and a sports healthcare center.
- The next stage is to accommodate additional events to strengthen the regional flagship center's function and to install a sports career center and an open play center as supporting facilities. In the third stage, we propose installing a sports enterprise R&D support center to foster the network between athletes and private companies, which will lead to creating a sports industry cluster through increased collaborations between sports-related institutes and private companies.

Key Words

Jeonbuk National Training Center, Youth Sports Complex, Sports Industry Cluster

정책연구 2023-04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필요성 및 추진방향 연구

발행인 | 권혁남

발행일 | 2023년 2월 28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463-3 9569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